

제군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닐 것을 나는 제군에게 언명한다.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니 반도의 미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출전 : 金性洙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大義에 죽을 때 皇民됨의 責務는 크다」, 『매일신보』, 1943년 11월 7일〉

3)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연두

- 이 시대 최고의 광영, 빛나는 조선청년의 특권을 살리라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

생각하면 이 시대의 최고 광영은 젊은 청년과 학도들에게 있다. 나라의 흥융을 결하는 결전의 마당으로 총을 메고 돌격하는 그 열화와 같은 조국애와 동포애는 오직 젊은이들만이 가장 힘차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광영스러운 군문으로 들 수 있는 '검사의 날'이 우리 학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궤연히 발분하여 학병을 지원하는 원서를 내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학도들의 가슴은 송고스러운 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날이 밝으면 각 검사장엔 태양이라도 정복하려는 기개에 찬 젊은 학도들의 약동하는 육탄군상을 볼 수 있을 것을 나는 생각하고 그들이 전부 '갑종'으로 합격하기를 축수하는 바이다.

지원한 학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원서를 내던 그 순간에 가졌던 각오와 결심은 원서 내민 것만으로는 아무 가치도 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군문에 드는 첫 관문은 검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이나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을진대 그가 어떻게 위대한 조국애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자못 말 뿐으로 그 각오, 그 결의는 영구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지정된 검사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지장이 생길지는 모르나 이 위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한 번 길이 열린 이 '순국의 대도'에 시종여일하게 돌진함으로써 학도의 머리에는 최대의 광영이 길이 빛날 것이다. 나는 검사장으로 나아가는 학도들의 빛나는 금후 활약과 그(판독불가)..... 축원하고 싶다.

〈출전 : 金性洙 「學兵을 보내는 恩師의 念頭 : 이 時代 最高의 光榮 빛나는 朝鮮青年의 特權을 살리라」, 『매일신보』, 1943년 12월 10일〉

7. 김연수(金季洙)

1) 장병의 노고를 사모하다

동짓날, '사변(事變)⁵⁹⁾이 일어난 지 4년째를 맞이하여 신동아 건설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 아닐 수 없는 동시에, 우리가 짊어진 책무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변이 발발한 이래 4년 동안 우리 황군(皇軍)은 중국 각지의 바다와 육지, 혹은 하늘에서 싸우면서 수많은 간난(艱難)과 신고(辛苦)를 아랑곳하지 않고 역전(力戰)을 거듭해온 것은 전적으로 동아 민족에게 광명을 주고자 한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은 말할 것도 없다. 황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이 이상전(理想戰)은 더욱 그 효과를 발휘해 건설적 공작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상을 이해하기 시작해 동아협동체제에 협력하기 위해 신 중앙정권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결실을 얻기까지는 앞으로 출정 장병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일치단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진지에서 한해를 넘기는 우리 장정들의 노고를 기리고 총후(銃後) 국민의 책무가 중대함을 반성하고 싶다.

〈출전 : 金季洙 「將士の勞苦を偲ぶ」, 『總動員』 1940년 1월호, 12쪽〉

2) 금일, 감격의 징병제 실시 - 무상(無上)의 광영

만주국명예총영사 김연수

조선통치사상 획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징병제의 실행을 보게 된 것은 2천 5백만 반도동포에게 무상광영(無上光榮)이며 황군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제일선에 서게 되는 반도청년의 환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어능위의 고마우심에 오직 눈물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조선인의 가정생활의 예식관습은 국가□□에 있어서 또 민도에 있어서 현재의 무□□□을 길러낸 일본가정에 비교하여 현저한 손색이 있는데 사람이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에 떨면서 황군연성의 군인가정인 병영에 들어가 황군정신의 철저한 훈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국황군군인으로서 씩씩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은 이들은 이제야말로 □□□□도의 산하에 국민인 우리는 일본에 난 보람이 있다는 □□으로 가득 차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 징병에 의하여 젊은 반도청년을 □□국의 종으로 보내는 반도 동포는 이에 일층 □□□□에 □□□□같이 타올라 일익 □□□□□□□□이 기대된다고 생각한다.

〈출전 : 金季洙 「今日, 감격의 징병제 실시-無上の光榮」, 『매일신보』, 1943년 8월 1일〉

59) 중일전쟁.

3) 단호히 승리

징병제라는 커다란 사건에 의해 ‘병사(兵)’와 ‘반도인(半島人)⁶⁰⁾의 관련성은 실로 감격적인 정도로 깊어졌다. 지금까지 반도인은 재래의 전통에 묶여 ‘징병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좁은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것은 모든 반도동포의 결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반도인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도의에 기초한 국가적 사상 아래로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문자 그대로 전쟁인 것이다. 그래서 큰 시련에 직면하여 제국의 존망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용감하게 출진하는 학도 제군(諸君)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에 가득 찬 것인가! 제군에게는 미국과 영국(米英)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 의무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제군의 승리는 신생 조선의 곡식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제군, 윤리적·도의적 진리의 앞에서 분골쇄신, 황국을 위해 완전히 봉사하기 바란다.

〈출전 : 金季洙 「斷じて勝て」, 『京城日報』 1944년 1월 19일〉

8. 김윤정(金玗禎)

1) 엄숙히 생각하라 - 지원병이 되는 참뜻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특별지원병제도에 따라 반도인 학도도 일본인 학도와 같이 출정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급하게 이러한 규칙이 실행되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일본인만으로서 병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학도까지 출정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는 분이 더러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은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같은 여자의 두뇌로 생각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즉 현재 재학중인 반도인 학도는 □5천 명은 되는데 5천 명이라면 꽤 많은 수효같지만 수□□□에다 비한다면 미미한 존재인 것이다. 지금 우리 황군은 북으로는 ‘알류산’에서 남으로는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넓고 넓은 전역(戰域)에 걸쳐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쳐부수기에 수다한 병대가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출정 군인과 또 일본에도 □□에 아직까지도 징병령에 차지 않은 피끓는 청년들이 그대로 동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반도인 학도를 지원케 하는 목적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반도의 짐을 벗자는 것이 아닌 줄을 알 것이다. 미영을 쳐부수는 것 같은 제1선 황군만으로도 넉넉한 것이다. 그러면 왜 반도인 학도들이 공부도 다 마치기 전에 전쟁에 참가할 길을 열어 놓는가 생각하면 앞으로 태평양전쟁의 완수를 보게 되는 날 미영을 쳐부수고 대승리를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의 맹주로서 대동아 안에 사는 여러 민족을

60) 조선인을 비하하기 위해 일제가 사용하는 용어. ‘반도민’.

지도할 것이 아니냐 말이다.

□□에 반도인으로서도 일본인같이 대동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구축하기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어느 좌담회의 기사에서 이러한 말을 읽었다. 어느 학생의 말인데 전장(戰場)은 인간완성의 새로운 도장이라는 것이다. 과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반도인 학도가 전장이란 새로운 무대에서 단련하지 않으면 완전한 지도자다운 인간이 되지 못할 줄 안다. 괴로움을 □맞본 사람과 일생동안을 아무 괴로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과 □□는 다를 줄 안다. 웬만한 사회의 지도자로서도 상당한 경력□ □□ 사람이 □□□ 것이다. 그런데 더욱이 대동아의 지도자가 될 반도의 청년들이 전장이란 인간 완성의 도장을 통해서 단련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반도인 학도는 이번 특별지원병제 지원서란 것은 은전이요 광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나 말이다. 10월 20일까지 마감이라 하니 누구든지 반도의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하기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출전 : 金玟禎 「엄숙히 생각하라-지원병이 되는 참 뜻」, 『매일신보』, 1943년 11월 14일〉

2) 숭고한 감화력 - 어머니의 정신이 자식에게

대동아전쟁 2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전사에서 드물게 보는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진실로 황군장병의 수고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대동아공영권이 차츰차츰 확립되어 가는 것은 마음 속 깊이 기뻐하고 있다. 여자로서 새로운 각오를 거듭할 것을 여자는 여자된 입장에서 무수히 실행하기만 바라는 바다.

우리가 국가에 봉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는 쉽지만 국가에 봉공하는 길은 우리의 근처서부터 자기의 생활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우리의 아이를 훌륭히 기르는 것은 여자의 본부이고 여자로서 나라에 봉공할 수 있는 특수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2년 전 이맘때 ‘하와이’ 진주만폭격에 호곡의 뜻으로 떨어진 구군신을 보더라도 그들은 조그만 휴가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모친을 모시고 며칠을 즐겁게 지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은 늘 어머니가 그리웠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마음 속 깊이 새겨두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그면 클수록 자식의 성공이 빠르고 클 줄 안다. 자식이 전선에 나섰을 때는 어머니의 생각보다도 큰 무훈을 세우게 될 것이다.

봉공이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라에 봉공하기 바란다.

지나사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제1선에 나섰다. 총후에서는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인간의 수요보다도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건설할 참다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양□에 있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바라는 것은 국책적으로 보아서도 우리 일본부인에게 부하된 중대한 사명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을 잘 길러낸다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랑을 하는 데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벌써 반도에서도 학도특별지원병으로 전문대학학도가 출진을 하게 되고 그 외 해군특별지원병도 목전에 닥쳐오는 징병령실시에 의해서 우리의 아들도 군인이 되어 재1선에 나가게 된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없었던 군인의 어머니로서의 자랑도 지니게 되었다.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광영을 느끼며 중대한 책임을 느낀다. 어머니가 조국을 위하는 숭고한 전신 속에서만 산다면 자식은 자연히 어머니의 감화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나부터도 어머니다 자식에게서 감화를 받을 점이 많다.

영웅의 자식이라고 해서 반듯이 영웅은 아니다. 현명한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자식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서로서로 손을 잡고 정진하지만 안 될 줄 안다. 징병제의 실시가 목전에 다다랐다. 세계 제일가는 일본군인은 누가 길렀느냐? 내지의 어머니들이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숭고한 정신을 배우면서 대동아전쟁완수에 매진하기 바란다.

〈출전 : 金玠禎 「米英擊滅에一層進軍! 決戰下 大東亞戰 두돌맞이 : 숭고한 감화력 - 어머니의 정신이 자식에게, 『매일신보』, 1943년 12월 8일〉

9. 김활란(金活蘭)

1) 여성의 무장

천성활란(天城活蘭)⁶¹⁾

‘지나사변(支那事變)⁶²⁾이래 우리들 여성은 총후(銃後)를 지키는 한 분자(分子)로 빈약하나마 마음껏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8일 황공하옵시게도 선전(宣傳)의 대조(大詔)가 내리시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저 미국과 영국(米英)을 치려던 그때부터 우리들 여성도 여태까지와 좀 다른 의미의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 여성이 여태까지 가졌던 총후를 지킨다는 소극적 관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총후의 전사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번 태평양전쟁으로 말하자면 인류사상에 여태까지 없었던 위대한 전쟁이올시다. 사람들은 미국 흑인노예해방의 전쟁과 먼 옛날 전 유럽(歐羅巴) 남아의 피를 끓게 한 십자군전쟁을 위대하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들보다 더 나올지언정 못하지 않는 것이 이번 태평양전쟁이올시다. 즉 동양인 전부를 저 앵글로 색슨 인종의 침해로부터 구하려는 성스러운 싸움이기 때문이올시다. 그들은 삼백여 년간 동으로 동으로 진출하여 저들의 무기가 우수함을 힘 믿고 서서히 세력을 펴서 우리 동양의 전부를 자기수중에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정의의 나라 일본의 나아갈 바는 결정되었습니다. 동양 십억여 민중을 위한 도의의 전쟁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61) 김활란(金活蘭)의 창씨명.

62) 중일전쟁.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을 비교해 보건데 동양은 도의(道義)의 문명이요, 서양은 물질과 기능에 지배된 소위 물질문명이올시다. 우리는 그들의 그 외형적으로 변화함에 눈이 어두워 그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나머지 그들 자체를 숭배하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때도 있습니다. 도의를 가지지 않는 그들의 비인간적 행동을 들여보자면 세계인구 약 이20억 중 우리 동양은 10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의 보고(寶庫)는 동양인의 손으로만 하더라도 아직 풍부함을 못 느낄 정도이거늘 하물며 그들의 무리가 침입하여 무지한 주민을 꼬여서 이익을 도모하려함은 전혀 도의를 저버린 행위올시다.

우리나라는 천의(天意)에 의하여 인구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허나 면적은 우리들을 수용하기에 충분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비도(非道)⁶³⁾한 그들과 같이 인의를 무시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어디든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일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아가는 데는 세계에 무서운 상대가 없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도의를 표방하는 나라올시다. 이번 성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과를 보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화평을 주장하고 가진 모욕에 대하여 참고도 또 참아왔습니다. 허나 물욕에 근시안이 되어 도의를 저버린 그들이 어찌 우리의 성의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단연코 일어난 것이올시다.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 동양에 있어 정치, 군사적 행동이 천의와 인의를 무시한 인위적 침략인 이상 어찌 더 오랫동안 계속할 수가 있으리오. 동양은 그들의 식민지로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동아(東亞)의 옥토를 언제까지든지 그들 손에 자유로이 맡겨둘 만큼 우리는 못나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승(祖崇)의 도의의 정신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실력으로 대항할 때는 무엇이 무서울 바가 있으리까. 정의가 앞설 때는 언제나 이기는 것이올시다. 저 독일에 대하여 영미가 취했던 바를 보십시오. 지난 구주대전(歐州大戰) 후 갖은 수단을 다하여 독일의 모든 것을 뺏은 후 앞으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허나 독일은 자기가 가진 특유한 정신만은 뺏기지 않고 이십수 년간 가진 고생을 다 겪은 후 지금 힘차게 다시 일어난 것이올시다. 그들 앞에는 지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몽매한 영미인은 외형으로만 보아 완전히 세계를 정복한 것으로 믿고 승리의 우월감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십억의 인류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하여 해방하려는 위대한 성전은 지금 개시되었습니다.

그 총후에서 싸울 수 있는 영광을 무엇에다 비하며 또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하오리까. 먼저 정신적 무장을 합시다. 말하자면 붉은 불덩이와 같은 우리들이 정성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올시다. 혹은 말합니다. 우리들 여성은 남성과 같이 제일선에 나가 싸우질 못하니 활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총후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원기를 돕는지 아마 측량치 못할 것입니다. 일본부인이 출정하려는 내 자식 내 남편에게 집일은 염려치 말고 '천황폐하'⁶⁴⁾에게 목숨을 바치시오 하는 그 말이 진격 중의 그들에게 돌도 없는 큰 위안이며 마음을 분기시키는 원천이올시다. 총후는 우리들이 지킵니다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의 본 정신일것입니다. 우미유까바(海嶼がば)에 있음과 같이 “大君のへにこそ死ため

63) 올바른 도리에 어긋남.

64) '천황폐하'는 일본왕을 뜻함.

かへり見はせじ” 이것은 비록 전선과 총후란 장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황국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적성입니다.

빈부의 차별없이 자기의 가진 모든 진심을 바치자는 것이 즉 여성의 무장이올시다. 이 근본정신 없이 여태까지 해오던 그와 같이 물질절약, 헌품, 헌금 등등 외형적만의 봉공은 마치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을지언정 아무 감정을 갖지 못한 인형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전부 바치고 있듯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 싸움 어떠한 괴로움일지언정 달게 받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질기고도 영구적인 봉공은 바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즉 신세법이 시행되기 전날 이 가두 풍경 역시 이 정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하루바삐 버리고 마음껏 희생적으로 나아가 봅시다. 앞으로 최대의 전과를 얻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정신적 무기 유무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전 도의와 동양 인류해방을 위한 전쟁, 그리고 일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아갈 때는 반에 있어 우리들은 자신을 가지고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칩시다. 그리고 이 성대에 생을 받은 기쁨 제국신민됨이 영광을 흠뻑 향수(享受)합시다.

〈출전 : 天城活蘭, 「女性の 武裝」, 『朝光』 第8卷 2號, 1942년 2월, 122~124쪽〉

2)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이화여자전문학교장(梨花女子專門學校長) 천성활란(天城活蘭)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허둥지둥 감격에만 빠지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지만 어쩔지를 모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갈래를 못 찾는 것도 현명한 태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도여성은 그저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이라는 범위에서 떠나보지를 못했다. 떠나볼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자칫하면 국가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도여성에게 애국적 정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적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戰場)으로 내보내는 일본의 어머니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막연하게 부러워도 했다. 장하다고 칭찬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반도여성 자신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 각오와 준비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나라에 바쳐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들의 유골을 조용히 눈물 안 흘리고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을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일본 여성에게 배울 점이 많다. 우리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원인의 하나가 일본 여성의 숨은 힘이라 한다. 말없이 참고 나가는 그들의 힘은 강한 사람의 몇 배의 힘을 가진 것이

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조용한 웃음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모방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 근본정신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를 위해서는 즐겁게 생명을 바친다는 정신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물론 국가에 속한 것이다. 최후에 내 생명까지 국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보면 국가에 속한 내 남편이나 아들 또 내 생명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 쓰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못 쓰인다면 오히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꼬집어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나라의 것을 나라가 쓰는 것이지 내가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잠깐 말았던 내 아들이 훌륭히 자라서 나라가 다시 찾아 가는 것이다. 나는 그 맑은 동안에 책임을 다한 것이 즐겁고 그동안 그 아들이 많은 즐거움을 준 것이 감사한 것이고 좀 더 하면 책임을 다 못하여 나라에 돌려보내서 쓰이지 못했을지도 모를 것을 훌륭히 쓰이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뿐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전 : 天城活蘭, 「徵兵制와 半島女性の 覺悟」, 『新時代』 第2卷 12號, 1942년 12월, 28~29쪽〉

3) 거룩한 ‘대화혼’을 명심, 적 격멸에 일로매진

이화여자전문학교장 천성활란(天城活蘭)

황국신민의 무쌍(無雙)한 영광인 징병제는 드디어 우리에게도 실시되었다. 그동안 2년간의 준비기를 거쳤으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일간은 반도의 징병제 첫 탄생을 축복하는 의미로 가지가지 행사가 조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새삼스럽게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공하옵신 성지(聖旨)에 다시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반도청년은 쓸쓸하였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지지 않을 충성된 마음으로 그대로 나타내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 좁았다. 그리고 이내뎡을 탄환화하여 적에게 부딪쳐볼 수 없는 그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청년의 나아갈 길은 단단하게 열려졌다. 나라를 위하여 불덩이가 티끌은 피와 몸을 통틀어 바쳐 성은에 보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으며 반도 남아의 의기를 보일 기회는 드디어 왔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수천 년 역사 이래 모처럼 보는 거룩한 감격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동아건설을 위하여 동아 10억의 민족을 저 ‘앵글로 색슨’의 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 황군이 도의(道義)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반도 청년에게 이러한 영예를 내리옵심은 더욱더 뜻 깊은 바이며 또한 행복된 일이다.

반도 청년이여 훌륭한 군인이 되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내린 책무에 끝까지 충성하소서. 이와 같은

군인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무쇠덩이와 같이 튼튼한 몸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튼튼한 몸이 필요한 것이나 특히 군인에게서는 몸하나가 전부를 대표하리라고 생각된다. 닭고 또 닭아서 그야말로 강철같은 몸을 만드는 동안에 또한 정신도 이와 병행하여 닦여질 것이다. 한 군인의 말에 의하며 행군 도중 몇 관(貫)이나 되는 짐으로 어깨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양말인지 발이 부르터서 벗겨진 껍질인지 모를 지경이면서도 괴로움을 모르고 행군해 나감은 순전히 정신력이 앞섬이라고 하였다. 끝까지 저항해 나아가는 마음, 주위로부터의 어떠한 유혹에도 좀 먹지 않는 군은 심정 이러한 것은 일조일석에 성취되는 바는 아니다. 부단의 노력, 무시훈련에서 성장된 것이다. 우리의 몸이 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요, 또한 부모의 것만이 아니요 첫째로 나라의 것이다. 어느 때나 응하여야 할 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자신의 몸을 닦는 데 힘을 쓸일 것이다. 군축회의에서 돌아온 해군위원의 한 분이 도쿄(東郷) 원수를 방문하여 5.5.3이라는 섭섭한 보고를 했을 때 양(量)에는 “제한이 있지만 훈련에는 제한이 없을 테지.....”라는 원수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해군은 그저 훈련, 훈련,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는 월월화수목금금의 맹훈련을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 부딪치는 곳곳마다 적에게 격멸에 격멸을 거듭시키고 있는 우리의 해군을 보라. 이 얼마나 훈련의 귀중함을 말해주는 뚜렷한 예인가. 모름지기 성장의 천금 같은 훈시를 스승삼아 이 몸과 이 마음을 연성(鍊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뼈속으로부터 ‘대화혼(大和魂)’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정신을 지금까지 말로서만 들었으며 이론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실제로 군무를 실행하면서 체험해 볼 수는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들도 이 혼을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존엄하옵신 황실을 받들어 모시고 생사를 초월하여 대군(大君)을 위하여 순국봉사하는 그 마음 오직 우리 황국신민만이 특히 제국군인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정신이다. 모든 충성된 그 마음을 한결 같이 대군에게 바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대화혼은 3천 년간 실재 없이 흐르고 흘러 크나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세계 어느 정신에 비하여도 그 종류를 찾을 수 없는 ‘대화혼’을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 속에 빈틈없이 채우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국군인의 빛나는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반도인의 첫 징병으로서 나아가는 청년들은 제국 군인으로서 완벽됨은 물론이요 반도청년들의 선발대로서 후진에게 수범(垂範)⁶⁵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범의 입장이란 책임있는 것이요, 선발대의 일무란 다난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없이 해 줄 것을 믿고 쌍수를 들어 이 첫 출발을 축복한다.

(완)

〈출전 : 天城活蘭, 「거룩한 ‘大和魂’을 銘心, 敵擊滅에一路邁進」, 『매일신보』, 1943년 8월 7일〉

65) 몸소 본보기가 되도록 함. ‘모범’으로 순화.

4) 열혈남아이거든 이때를 놓치지 말라

이화여전 교장 천성활란(天城活蘭)

특별지원령의 □□□바 군문으로 나가기를 지금까지 망설이는 학도가 있는가 올 □에 학교를 나온 졸업생이 있는나 말이다.

신문으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대 선배는 매일같이 □□□이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재촉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해도 학도의 마음에 해결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동안 학도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생 선배를 찾고 의문을 물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아래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학도를 보라.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는 것이 많은 선배는 학도들의 마음에서 안개같이 서려진 회의를 풀어주리라 믿는다.

청년은 한편 단순하여 선배가 옳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길이면 선뜻 나서는 사람도 있고 또 까닭 없는 일을 공연히 주저하며 의심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 전자는 이번 특별지원병으로도 벌써 지원했을 것이고 후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모양 같다. 책상을 마주하여 머리를 싸안고 곰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앞날의 대동아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시아 10억 민족의 해방과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남아면 피끓는 청년이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싸움터로 나올 것이다.

한 번 나서서 싸울 사명을 느끼지 않는가?

마음이 □□□같이 □□□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가? 죽음이 무서워서 못나가겠다는 청년이 있다면 참으로 □□□이다. 딱한 일이다. 그러한 비겁한 사람은 없을 줄 안다. 없어야 할 것이다. 반도의 어머니들은 그런 비겁한 사나이는 낳지 않았을줄 안다. 그러면 앞날 태평양전쟁을 대승리로 끝마치는 날 황군과 같이 대동아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 못할까봐 망설이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 것은 없을 줄 안다. 도조(東條) 수상이 반도는 일본과 같이 지도□□에 서야 된다고 설명한 말씀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일□ 대동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싸우기 바란다. 그러면 조국도 빛나고 학도들 자신도 빛날 줄 안다. 마감이 되기 전에 용맹하게 나서기를 맹세하기 바란다.

〈출전 : 天城活蘭 「열혈남아이거든 이때를 놓치지 말라」, 『매일신보』, 1943년 11월 18일〉

10. 남백우(南百祐)

1) 쌍수를 들어 찬탄할 뿐

중추원 참의 남백우

배계(拜啓) 귀사(貴社) 익익번영(益益繁榮)하심을 공축(貢祝)합니다. 금번 귀사에서 반도의 지원병 지원자 10만 돌파기념 특호(特號) 발간에 제(際)하여 생(生)과 여(如)히 천식자(淺識者)에게도 기고의 하명(下命)이 유(有)함은 감하(感荷)함을 불이(不已)합니다.

아시는 바와 여(如)히 북선지구(北鮮地區)는 자(自) 금월 6일 지(至) 동 12일 1주일간 방공훈련이 시행되어 생(生)이 소위 분단장(分團長)의 책임자로서 금일까지 1주일간으로 차(此) 훈련에 출동하여 3일간은 일가(一暇)를 얻지 못하고 철야하고 금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피곤에 잠겨 원고를 쓸 정신조차 없사오나 다른 문제와 달리 우리의 지원병 지망자 10만 돌파의 성사(盛事)에 대한 일이오매 오직 이 세기적 위대한 사실 앞에 국민의 일분자(一分子)로서 축하하여 마지 않사옵나이다.

〈출전 : 南百祐, 「雙수를 드러 讚歎할 뿐」, 『三千里』 1940년 7월호, 72쪽〉

11. 박마리아(朴瑪利亞)

1) 어릴 때부터 바다에 친토록

우리반도의 어머님들은 작년 이 맘때 내리옵신 징병제에 대한 감격도 아직 새로울 것입니다. 거기에 거듭 반도에다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먼저 황은에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육지에서보다 넓은 바다의 주인까지 되게 하옵시니 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무대가 커지고 책임도 커졌으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한층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신교육이나 육체단련에 있어서 실질 강건한 교육을 해야 할 각오는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이것을 실행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린아이 때 동화를 통해서도 바다에 대한 애착을 길러주고 바다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해주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동양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겠습니다. “ヘイタイサン”하면 육군과 함께 해군도 언뜻 생각하도록 어머니께서 교육시키셔야겠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아드님을 바다와 친할 수 있고 사귄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겠습니다.

〈출전 : 朴瑪利亞, 「어릴 때부터 바다에 친토록」, 『매일신보』, 1943년 5월 14일〉

2) 칼 잡고 일어서자

기독교청년회 박마리아

학도특별지원령 마감도 박두했다.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반도는 학도들의 출정을 위하여 떠들썩하였다. 지원하기를 망설이고 꾸물대는 학도들을 위해서는 선배들이 강연회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설 새 없이 이치를 설명하여 주었다. 직접 간접으로 학도로 하여금 이번 광영의 군문으로 나서기를 권한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이만치 일러서 다 깨달았을 줄 안다.

반도의 학도들은 다 현명하리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안다. 일찍이 선생 선배와 부모가 학도와 자제를 그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역경에서 울고 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도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고 구태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그러한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어떠한 이유로 지원을 망설이고 괴로워하는지 알고 싶다.

지원이라고 하니까 출정하나 안하나 내 마음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학도는 침착하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라에서는 학도들 자신의 애국심에 의거해서 학도들 자신이 스스로 자진해서 싸움터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강제로 학도들을 소집해 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 학도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오는 모양을 볼 때에 얼마나 기특한 일이나 말이다.

학도들은 지원한다는 말의 깊은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다. 즉 지원은 부르심이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도들을 왜 부르시었나?

우리나라는 태평양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십억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 동아시아의 십억 민족을 미영의 압제에서 구하여 앞날 천년만년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전쟁이다. 그런데 반도의 청년학도는 동아시아의 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다.

피끓는 학도들은 이 중대한 현실아래 아모레한 사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학도들은 반도의 중핵이다.

학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반도의 장래를 좌우한다. 이번 기회에 반도의 청년들이 전장에 나가서 힘껏 싸운다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학도를 자신을 위해서 이에 더 좋은 일은 없을 줄 안다.

내 말은 모두 주제넘은 말이지만 학도들의 대선배의 말을 삼가 듣기 바란다. 그른 소리를 학도들에게 할 일은 없는 것이다.

마감까지 한 명 빠지지 말고 바른 길로 나가기 바란다.

〈출전 : 朴瑪利亞, 「칼 잡고 일어서자」, 『매일신보』, 1943년 11월 19일〉

12. 박상준(朴相駿)

1) 무적해군 빛나라

경학원(經學院) 대제학(大提學) 박택상준(朴澤相駿)⁶⁶⁾

“참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머리를 내놓으며 경학원 대제학 호-사와(朴澤相駿)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육군에는 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후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1년 후에는 광영의 징병제도가 실시키로 된 이때 제국 해군에도 반도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반도민 중으로서의 이우에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번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자 ‘하와이’진주만 호주의 ‘시드니’항 ‘마리아’근해 그리고 그 외의 넓은 해역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우리무적 해군의 전통을 한층 빛내었거니와 이것은 실로 정신적 기술 훈련의 세가지가 한데 엉키어서 이루어진 성광이다. 이와 같이 견적필살(見賊必殺)의 정신을 가진 것이 다른 나라의 해군과 전혀 다른 점인 동시에 특징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닦게 할 것이고 전투정신을 교육시키겠지만 우리의 해군과 같이 평소의 연습이 곧 전쟁이라는 굳은 결의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반도인도 무적해군의 ……(판독불가)……

여 일본동포에 뒤지지 않을 씩씩한 정신과 체력을 가지고 봉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한 층 우리 무적해군의 광영과 빛나는 전통을 철저히 인식하여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보국의 결의로써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출전 : 朴澤相駿 「無敵海軍 빛나라」, 『매일신보』, 1943년 5월 13일〉

2) 시사여귀(視死如歸)의 정신, 어머니의 자각이 필요

경학원 대제학 박택상준

역사적인 8월 1일 이 날을 맞이하여 감사 감격하는 바가 많다. 첫째로 일시동인(一視同仁)⁶⁷⁾의 황은에 감사를 드린 이번의 징병제 실시도 이천오백만의 신민에게 내려주신 광대무변한 성은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명예있는 징병제의 실시로 인하여 반도의 청소년도 이제는 완전히 제국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황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날이 왔음을 기뻐하는 동시에 일시동인의 성은을 깊이 감사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66)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

67) 모든 사람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

둘째로는 역대의 총독을 비롯하여 총독부 당국의 내선일체 황민화의 시정방침과 한편 또 조선군사령부 당국의 반도인 황민화에 대한 노력이 보람있어서 결국 오늘날의 명예스러운 징병제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 반도 동포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중일전쟁 이래로 한층 더 높아져 온 것이 이번의 이 감격의 징병제 실시의 역사를 바르게 하여 준 원인의 하나이다. 일단 사변이 발생되자 반도동포의 순국의열은 거의 고조에 달하여 현금저축 기타의 봉공을 하여왔다. 그리하여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되자 지망하여 오는 자가 날로 늘어가고 개중에는 혈서로써 불타는 정성을 표시한 청년도 있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위에 말한 세 가지의 조건이 이번에 실시된 징병제를 촉진하여 준 중요한 원인인데 다음에 나는 이 역사적인 징병제 실시를 당하여 몇 가지의 희망을 말하여 일반의 참고에 이바지 하려고 한다. 이제로부터 반도의 청소년도 제국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정신적 기백이 실로 황군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충분한 소질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위선 반도 청소년들에게 상부의 기풍을 좀더 조장시키고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옛사람들은 시사여귀(視死如歸)라고 하여 죽는다는 것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같이 일러왔으니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위로단 한분이 신 황제폐하를 위하여 던지는 황군의 □래의 중용감사의 정신을 완전히 품고 언제든지 천황폐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굳고도 철저한 군인정신을 표한 것이라 우리 청년들도 이 정신을 깊이 마음에 새겨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 훌륭한 황군을 만들어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 어머니로 하여 그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군국의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중대한 말인가 한다.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께 있다. 예로부터 훌륭한 아들을 길러낸 등 뒤에는 전부가 훌륭한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찍이 증자(曾子)는 “전진무용비효야(戰陣無勇非孝也)”라고 하여 전쟁에 나아가 용맹치 못한 것은 부모께 효도가 못된다는 뜻을 말하였으니 참으로 군인된 자로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움에 나가서 공로를 세우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 대하여는 효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되는 사람은 항상 깊이 명심하고 자녀교육에 힘써야 한다.

끝으로 반도의 이천오백만 동포는 이번의 징병제 실시야 말로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일의 한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에 다시금 마음에 새겨넣고 오로지 황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진은 호사와 씨)

〈출전 : 朴澤相駿 「視死如歸의 精神, 어머니의 自覺이 必要」, 『매일신보』, 1943년 8월 2일〉

13. 박인덕(朴仁德)

1) 생산확충의 정신, 이것으로 일을 하라

요새 참말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이 맹렬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다. 이상하던 바가 실현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예로부터 유희(遊休) 인원이 많은 지식층이라든가 부유한 계급의 부인네라든가는 우리 애국반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으로 고르게 노무할 수 있게 된 데는 모름지기 반가움을 가지고 있다. 무슨 운동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서 강제로 억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즐겨서 하는 것과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애국반에서 동원시키는 개로운동은 강제적인 것보다 애국반원의 자발적인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가령 방공호를 판다든가 방공훈련을 하는 데 있어도 애국반원 한사람 한사람이 총동원해서 서로 손이 맞을 것 같으면 손쉽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 개로운동에 대해서 내 특별한 시책이랄 것은 없으나 특별히 여성에게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물자 생산 확충의 정신을 가지고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간에 하루에 한 시간만은 이 물자 생산 확충에 정신을 쓰는 동시에 노무를 해서 글을 쓰고 화초 재배를 하고 방공호를 파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합하여 노무를 한다면 조선여성이 천 이백만이니 천 이백만에서 노인과 유아를 빼면 육백만은 될테니 육백만 사람이 하루 1시간씩이면 육백만 시간, 육백만 시간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인가. 지구의 한편 끝에서 한 편 끝을 구멍을 뚫는대도 뚫을 수 있는 시간이요, 지구의 주위를 다듬질 칠 때도 능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 전체의 시간을 생각할 때면 조금 게을러지다가도 내 한사람의 태만으로 전체를 그릇친다고 생각하고 소스라쳐 얼른 나서는 것이다.

요새 그 의복을 본다면 참으로 간편한 점에 감탄을 하는데 여자애국반원의 몸빼를 예를 들어 본대도 꼭 경주장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의복 같다. 의복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장애가 없는 그 질에 있어서나 모양에 있어서나 아무튼 간편하고 쉬 더럽지 않는 그런 것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모로 보나 원만한 개로운동이 한창 더 고조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朴仁德 「生産擴充의 精神 이것으로 일을 하라」, 『春秋』 第2卷 第11號, 1941년 11월, 39~40쪽〉

2) 우리도 국군의 어머니 - 국군어머니의 긍지

덕화여숙장(德和女塾長) 영하인덕(永河仁德)⁶⁸⁾

과거 반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士, 선비)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선비를 중심으로 하고 훌륭한 선비

68) 박인덕(朴仁德)의 창씨명.

를 내이기에 어머니 된 이나 아내 된 이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역사나 전통을 통하여 듣건대 몹시 가난한 집 선비의 어머니나 아내가 험벗고 굶주리면서도 아들이나 남편의 성공을 위하여 싸웠다는 사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비들의 뒤에는 반드시 어진 어머니나 아내가 있음을 인증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일의 반도의 어머니 되는 명예와 자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러한 기회를 우리 황국여성들이 지금 가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실시될 징병제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로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냐고 피차 묻게 됩니다. 첫째 우리들은 징병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징병제는 국민은 누구나 다 군인이 되어 충군애국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회인이나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앞으로는 당당한 황군이 되어 멸사봉공(滅私奉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은 군인이 된다니 그러면 여자도 총과 칼을 들고 군인이 되어 싸우게 되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자가 총과 칼을 가지고 직접 제일선에서 싸운다함보다도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여자를 교육하며 생활함을 뜻합니다. 1944년도부터 징병제가 실시될 때에는 남자만 20세 되는 이는 그중 제일 신체가 튼튼하고 정신이 씩씩한 이들은 선발이 되어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군사에 관한 것 실생활에 관한 것을 공부합니다. 거기서야말로 소제(掃除)⁶⁹⁾도 손수하고 세탁(洗濯)도 하고 밥도 지어보고 규칙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자연히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을 동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도가정은 징병제도로 인하여 처음으로 이해와 동정이 있고 정돈된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왕 맞보지 못한 새로운 가정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반도의 어머니들은 이제부터 제 각기 '나는 제국의 어머니다' 하는 정신을 철저히 가져야겠습니다. 어떻게 이 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일본여성들의 생활을 배우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들의 약사를 읽고 듣고 공부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서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요, 천황폐하의 적자요, 국가에 속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교육은 새로운 입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시작되려면 우선 생각부터 그 방면으로 돌리는 것이요 또는 천황폐하께서 쓰시는 국어⁷⁰⁾를 우리도 한 마디 두 마디 꾸준히 배워 쓸 것입니다.

국어를 배움으로써 자연히 일본인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 반도의 어머니들은 모처럼 받은 이 군국의 어머니의 지위를 귀중히 여기고 유감없이 잘 써서 군국의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됩시다. 오직 이 한 목표를 향하고 제각기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전 : 永河仁德, 「우리도 國軍의 어머니 : 國軍어머니의 矜持」, 『半島의光』 鮮文版 56號
1942년 7월, 16~17쪽〉

69) 청소.

70) 일본어를 뜻함.

3) 반도 부녀자들에게도 결전동원령은 내렸다

덕화여숙장 영하인덕

오는 12월 8일로 우리는 태평양전쟁 2주년을 맞이합니다. 흉악무도한 미영(米英)에게 정의의 칼을 들고 일어서 두 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동안 우리의 황군용사들은 육지로 바다로 또는 하늘(大空)로 전고(前古)에 없는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고 또 저도 뒤에서 뒤에서 새 힘을 모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과 풍부한 물자를 가진 미국이요, 이때까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여온 영국입니다. 황군은 이미 서전(緒戰)에 있어 날쌔고 재빠르게 이 두 큰 적을 물리치고 동아(東亞)에서 그들의 세력을 뿌리베어 버렸으나 적은 추근 추근하게 반공을 꾀하여 솔로몬과 뉴기니아에서는 피차(彼此)에 사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필사의 힘으로 이때까지의 패전을 회복하고자 알 볼 수 없는 세력으로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야 말로 우리 2천 5백만 반도백성들도 모두 일어나 순국의 정신을 떨쳐 일으켜 가지고 결전마당으로 뛰어나갈 때입니다. 내년부터 반도의 젊은이들도 모두 님의 방패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니와 지난 11월 20일로 특별지원병지원도 끝마치게 되어 우리의 아들과 동생들은 나라에 바치고 나서는, 이제야말로 우리도 정말 황민된 의무를 완전히 다 할 수 있어 감격이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결전마당을 당해서 우리반도부녀자들도 다른 어떤 나라의 부녀자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군국의 여성답게 모두 다 일어서서 싸워야할 때는 바야흐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여러 방면으로 싸우고 계신 분도 없지 않겠지만은 반도 2천 5백만의 반을 차지한 우리 여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하여 전선에 나서는 아들, 남편, 오빠의 뒤를 단단히 받혀주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의 뒤를 받혀줄 것입니까.

첫째 그들로 하여금 뒤 걱정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지원병에 지원한 청년들 중에는 홀어머니의 독자도 있고 또는 갓 장가든 아들도 있고, 또는 가세가 넉넉지 못한 장자들도 있고, 또는 노부모의 귀한 막내둥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서 지원한 이들은 지원하기 전에 '내가 가면 집안일을 어찌하나' 하고 필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소극적이요, 국가를 위하여서는 그러한 적고 안이(安易)한 생각을 버리고 쾌(快)하고 선선하게 나갈 것이라고 당사자와 부형이 같이 생각하고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내된 이들은 그 용감스러운 뜻을 받들어 어디까지나 그들이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때야 말로 아들과 남편이 없더라도 집안일과 밖의 일을 함께 우리 손으로 우리 머리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각오를 갖고 실제에 나타내는 결의를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정하는 이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각오와 결의를 할 때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자는 언제나 여자의 천직이 있어서 어느 때를 물론하고 가정살림을 보살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 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전시에는 그 천직 외에 남자의 일까지라도 맡아볼 만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남자들은 다 싸움터로 나간다하더라도 우리 부녀자들 손으로 나라 안을 지킬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 있어서 민활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공습(空襲)을 받을 경우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불을 끄고, 또 어디가 파괴되었다면 어떻게 복구하고 또는 부상자가 생기었을 때에 치료할 순서까지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은 농촌이나 도시를 물론하고 우리 여성전체가 다함께 일어나서 할 일이고, 더욱 농촌부녀 되신 분들은 우리 일억 국민과 황군의 식량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녀자들이 일어서서 할 일 중에도 제일 중한 것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장(戰場)이 즉 제일선인 것임을 벌써 아실테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단지 봄에 밭 갈고 씨를 뿌릴 때로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이때까지의 몇 배의 노력을 더 하셔서 가을의 수확이 역시 몇 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식량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크고도 굳은 결심 아래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황군의 마음을 안위시킵시다.

다음은 각 공장으로 일하러 가십시오. 농촌의 부녀자들은 '식량은 우리의 손으로' 라는 표어 밑에서 부지런히 일심전력하듯이 '폭탄과 탄환은 우리들 여자의 손으로' 라는 깃발아래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장 용감하게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라도 싸울 무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싸울 무기는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 보내십시오. 공장에도 그 종류가 여러이 있어서 군수품공장 외에 우리들의 생활에 반듯이 있어야 할 필수품공장도 많이 있는데 어찌든지 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 각오를 하십시오.

이렇게 남과 같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할 만한 체력을 채 못 가진 부녀자들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을 도와 어린이들을 보아주십시오. 이제로부터는 각 여학교나 전문학교 여학생들은 공부보다도 실제로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농번기에는 각 농촌으로 가서 탁아소 일을 맡아보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직업여성을 위한 탁아소를 지도하게도 될 것이요, 더러는 영아건강 상담소나 해산어머니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여학교에서 하기휴가를 이용하여 군인의 의복을 수선한 일이 많았습니까. 앞으로는 각 여학교 학생들 뿐 만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 외에 철도, 은행회사 같은데도 우리부녀자들이 책임을 지고 일할 각오와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독일서는 이번 독영전쟁(獨英戰爭)이 일어나면서 처음 2년 동안에 250개의 기차정거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부녀들이 역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할 여자의 수도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장차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 여성의 말씀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의 활동을 들은 대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처음 2개년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훈련받은 여자가 1천만 명이상이 된답니다. 그 수가 우리 반도여성 전체 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의 여자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농장, 공장, 철도, 은행, 각 회사, 탁아소로 퍼져서 봉사하는데 과연 놀라우리만치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장에서 일한 수만 405만 명이요, 그 일한 시간 수로 말하면 1억 1천만 시간이라 합니다. 이것을 연월일로 계산하면 12557년 8월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싸우는 군인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데 23만 명의 여자가 940만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싸우러 나간 이들로 하여금 집안일에 대한 염려가 조금도 없이 싸움에만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이때 우리 부녀자들의 할 일인데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과 오빠들을 따라 제일선으로 백의천사로 나아가십시오. 이번에 특별임시지원병의 지원 때

에 '나도 오빠를 따라 적십자 간호부로 제일선에 나아가겠다' 는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속마음으로 '나도 젊었다면'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서십시다. 언제나 나라에서 부르실 때에는 서슴지 않고 일어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쟁은 날로 심각하여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날로 긴장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각오와 준비를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일선의 황군의 분투를 생각하고 그 빛나는 전과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아들도 이 싸움에 내보내는 광영을 참으로 느낄진대, 우리 반도여성들도 이때까지의 마음을 한번 바꾸어먹고 다리와 발목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싸움터로 나가는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마음에 남김이 없도록 침착하고 미더운 태도를 가질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싸우고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방호와 생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가 원수의 광영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까지 싸워나가십시다.

〈출전 : 永河仁德, 「半島 婦女子들에게도 決戰動員令은 내렸다」, 『放送之友』第6號
조선방송협회, 1943년 12월, 34~37쪽〉

14. 배상하(裴相河)

1) 반도의 젊은이들에게 보낸다 - 징병제도와 함께

성야상하(星野相河)⁷¹⁾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로 간다. 바다는 물의 모태가 아니던가. 그 중심이자 안주지이다. 물의 가장 큰 모습은 바다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바다는 바다 자체인 동시에 세계의 모든 물의 집합 연못이기도 하다.

서쪽에서 탄생한 모든 문화는 세월과 함께 동쪽으로 흘렀다. 유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일본에서 그 최대 본질을 발휘했다. 일본보다 더 동쪽에, 보다 훌륭한 유교·기독교·불교, 보다 훌륭한 그 어떤 문화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바다는 물의 중심이고 일본은 문화의 바다이다.

근세 초기부터 서양의 무력은 종종 동양을 침식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이 채찍질을 당했다. 하와이의 산호초가 무참히 뽑혔다. 필리핀인 항복했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항복했으며, 끝내 중국도 망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쪽으로 서쪽으로 노도와 같이 진군하는 그들의 무력에도 마침내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거기에 일본이라는 철벽이 있었던 것이다. 바다는 물의 중심이고 일본은 문화의 바다였다. 나아가 일본은 무력의 궁극지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다. 황군(皇軍)은 무력의 궁극자인 동시에 또한 문화의 결정체이다.

71) 배상하(裴相河)의 창씨명.

천황의 방패는 이윽고 세계의 근위병이다. 일본의 병사는 유구한(중략) 천황만 받든다. 알렉산더를 따라 그랑크스 호반에서 싸운 게르마니아 병사들도 용감하긴 했다. 나폴레옹과 함께 스펅크스 뒤에서 싸운 프랑스의 병사들도 용감하긴 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은 오늘날 누굴 위해 싸우고 있을까. 알렉산더가 죽고 또 다른 알렉산더는 없었고, 나폴레옹이 죽은 뒤 더 이상 나폴레옹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병사들은 건국한 그 옛날부터 금치(金鷄)⁷²⁾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황 밑에서 세계의 중심인 일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 법칙은 자손만대, 늘 변하지 않는다. 실로 일본 병사야말로 신하로서의 충성에 있어서, 병사로서의 용맹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덕화(德和)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을 짊어지고 설 수 있는 황군의 이름에 걸맞다. 이와 같이 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반도의 젊은이들도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선다. 반도에서 태어난 자, 또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저 살아있는 증표가 있을 뿐이다.

위업은 진심어린 마음에 의해 성취된다. 진심은 중심이다. 팔굉일우, 내선일체, 반도에서의 징병제도와 같이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위업이 세계의 중심인 일본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인도에도 인도 병사가 있고, 필리핀에도 토민군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반도의 징병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침략국의 침략의 도구로서 고용된 물적인 병사인 데 반해, 후자는 폐하의 적자로서 건국의 이상인 팔굉일우의 현현에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영혼의 영광을 짊어진 것이다. 내선일체라는 미증유의 위업을 온몸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놀라운 금자탑이다. 전자가 충을 드는 의무 대신 먹기 위한 빵을 권리로서 요구하고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인 데 반해, 후자는 신에 의해 부여받은 일본 국가의 의무와 동시에 확고한 '평정'에 전력을 익찬(翼贊)하고 받을 수 있는 숭고한 권리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병사는 실로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와 결부되어 있고, 일본의 병사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반도의 젊은이들도 향후 세계사의 재편성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찍이 신라에도 고구려에도 이씨조선에도 용감한 반도 병사들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종일관 작은 침략과 작은 방어에 종사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세계사적 세계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천황의 방패로서, 팔굉일우의 익찬자로서, 내선일체의 실천자로서 세계로 약진하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찬란히 영원한 영광에 빛난다.

이처럼 위대한 임무를 맡은 일본 병사는 2600년에 걸친 정신적 훈련과 육체적 단련을 거쳐 왔다. 오늘 이 날 부름을 받은 반도의 젊은이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적인 정신의 훈련, 일본적인 육체의 단련, 반도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말은 이것이다. 반도의 병사들이 일본 내지에서 태어난 병사들에게 저서는 안 된다는 작은 경쟁심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폐하의 이상을 떠받들 수 있는 완전한 병사가 되기 위함이다.

영광은 자네들에게 있다. 영광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네들에게 있다.

(녹기 일본문화연구소원)

(출전 : 星野相可, 「半島の若人に贈る - 徴兵制度と共に」, 『綠旗』 第7卷 6號, 1942년 6월, 29~31쪽)

72) 진무천황(神武天皇)이 나가스네히코(長髓彦)를 정벌했을 때 활에 앉아 빛을 받혀 적의 눈을 멀게 하여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금빛 솔개.

2) 도의(道義)조선의 확립과 금일의 반도청년

성야상하(星野相河)

1.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어떤 방면에서도 그 추진력은 항상 청년들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오늘날 조선에 성취되어야 할 최대의 급선무, 즉 도의조선(道義朝鮮)의 확립에서도 그 추진력이 반도에서 태어난 청년 제군들 이외에는 없음을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사회 또는 국가의 추진이란 사회 또는 국가의 혁명 또는 유신을 가리킨다. 몽고의 광야에 몽골 제패가 싹트고 있을 때 칭기스칸은 청년이었다. 프랑스 혁명에, 러시아 혁명에 그 선봉에 나선 것은 모두 청년이다. 나치 독일은 히틀러유겐트에 기대고 있으며 우리 막말(幕末)의 풍운이 메이지(明治)의 유신으로까지 지양된 것도 바로 청년들에 의한 것이었다. 전쟁은 다가올 혁신을 의미한다. 과거의 모든 전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동아전쟁에서도 육탄상박(肉彈相搏)하는 불꽃은 청년에 의해 훑날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또는 국가가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청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도의조선의 확립에서 역시 반도 청년들의 힘이 최대의 추진 요소가 되어야 한다. 무릇 혁신이란 낡은 가족부대에 새 술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파괴와 이탈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동경에 가장 늙은 것이 청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조선이 그 낡은 껍질을 찢고 조선적인 잔재를 떨쳐서 도의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까지 다듬어내기에는 여전히 조선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보존하고 있다. 이른바 조선의 기성층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고, 시종일관 모두 청년 제군들 손에 의해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도의조선의 확립이란 조선의 완전한 일본적 환원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조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조선의 역사, 특히 이조 500년사를 되돌아볼 때, 오욕과 울분으로 통곡하는 것은 비단 조선인만이 아니다. 그것은 간헐적인 잠정 이외에는 모두 타국에 대한 속국인 역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손은 독사에 물리고 발은 갈충(蝟蟲)에 의해 상처받은 모습,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조선이었다.

그런데 34년 전 조선에는 아름다운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신국(神國) 일본으로의 환원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립국가인 신국 일본으로 환원되어 여기서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늙은 재출발을 한 것이다.

독사에 물린 손은 절단해야 한다. 나를 죽이고 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도의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소(小)를 죽이고 대(大)에 사는 것은 종교의 진체(眞諦)이다. 구조선을 탈각하고 황국(皇國)에 사는 것이야말로 일본적 환원으로의 요소이고 도의조선의 핵심이며 구원받아 마땅한 조선의 단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구(舊)조선적인 모든 잔재를 벗어던져라. 탈각의 연못에 바로 재생의 연꽃이 피고 있다. 도의

조선 확립의 추진력이 되어 마땅한 반도의 청년들에게 내가 첫째로 요청하고 싶은 점은 ‘구조선적 잔재로부터의 탈각’이다. 그리고 조선적 잔재란 자네들 주위에 있는 모든 구체제를 가리킨다.

3.

‘구조선적인 잔재로부터의 탈각’은 모든 감상을 거부하는, 오직 ‘늠름한 의지’만 요청한다. 일본인이 되려는 의지이다. 오직 이 의지에만 위대한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선적인 것의 탈각은 어쩌면 조선인으로서 슬픈 일일지도 모르겠다. 오늘날의 환경에서 일본인이 되려는 노력은 엄청난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도 요컨대 조선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장맛비에 젖은 옷깃, 아침 얼굴에 깃든 이슬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자네들의 심장이 계속 울리고 있는 동안, 자네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동안, 오로지 늠름한 의지로만 살아가자고 있는 힘껏 외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네들이, 자네들의 아이가, 손자가 신민(臣民)으로서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신민으로서의 이런 생활이야말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낳는 원천이다. 오직 거기서만 위대한 희망의 길이 열린다.

때로는 향간에 일본 내지와 조선의 차별에 대한 불평을 듣는다. 불평은 감상의 자식이다. 늠름한 의지로만 살아가는 자네들은 모든 불평에 귀를 닫아야 한다. 자네들은 봉우리에서 봉우리를 건너는 바람, 세속의 목소리에 현혹되기에는 너무나 많다.

일본인이 되려는 자네들의 정진이 아무리 열렬해도 국어 사용법, 일본적인 예의작법에 여전히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은 과도기인 오늘날 필연적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지와 조선 간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별이 있다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도기적 등차(等差)에 지나지 않는다. 자네들의 일본인적 노력이 결실을 볼 때, 이러한 차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함부로 불평하는 목소리는 일본인적 의지의 결핍, 일본인적 노력의 불비에서 생긴다. 철 이상의 강인한 의지가 맥진(驀進)할 때, 이윽고 도달할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무슨 등차가 있겠는가.

4.

‘구조선적 잔재로부터의 탈각’과 ‘늠름한 일본인적 의지’를 지닌 반도의 청년들에게는 셋째로 ‘묵묵한 실행’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는 ‘논리를 따지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는 있어도 그 논리를 초월해서 한다는 의미이다. 무릇 논리가 없는 실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묵묵히 실행’이란 ‘불언(不言)의 실행’을 의미한다.

도의조선의 확립이 조선인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것과 대동아전쟁은 불가분의 인과관계로 결부되어 있다. 즉 도의조선의 확립으로 대동아전쟁의 승리가 촉진되는 것이다. 서남태평양에 황군이 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적보다 뛰어난 물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임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오늘날의 반도 청년은 오로지 묵묵히 행하고, 그리고 적보다 뛰어난 물자 이상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때에 반도에 대한 적국의 음모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오늘날 반도의 청년도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부름을 받고 간다. 유대의 괴뢰 따위가 어쨌단 말이나. 앵글로색슨의 물자가 어쨌단 말이나. 신국 일본을 짊어진 반도 건아가 여기에 있다. 아시아의 용자(勇者)가 여기에 있다. 진지의 북소리가 들린다. 환호소리가 들린다. 자네들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는 혼백이 지켜주고 있다. 나서자. 싸우자. 아시아의 일본이 유대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바라건대 반도의 청년들이여!

도외조선의 확립을 품고 묵묵히 일어나라!

대동아전쟁에 신성한 피를 흘려라. 이 피가 세기의 역사에 도도히 흘러가도록.

‘구조선적 잔재로부터의 탈각’

‘늠름한 일본적 의지’

‘묵묵한 실행’

이상의 전제에서

‘도외조선은 반도 청년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결론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녹기 일본문화연구소원)

〈출전 : 星野相可, 「道義朝鮮の確立と今日の半島青年」, 『綠旗』第8卷 10號, 1943년 10월, 28~29쪽〉

15. 서춘(徐椿)

1) 반도청년이여 분기하라

참사 서춘

반도청년 제군들, 나는 잠시 내 소신을 말하고 제군들의 심금에 어떤 울림을 줄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군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전도에 빛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 또한 제군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에 제군들의 그러한 심사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제군들이 무엇을 위해 그러한 푸념을 늘어놓는지 잘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군들을 더욱 격분케 하는 자극제는 되지만 제군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쇠가 연마를 거쳐 칼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간난(艱難)을 거쳐 위대해지는 법이다. 따뜻한 옷과 포식·편안함에 안주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아무런 기여하는 바가 없는 자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수

치이고 국가와 사회의 독이다. 인생은 현재 놓여 있는 환경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늘 더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장벽에 저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장벽이 아무리 크다 해도 거기에 저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도 능히 그 간난과 곤고(困苦)를 통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자신의 '보다 나은 광명으로 향한 길'을 발견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

얕은 물은 안전이긴 하다. 그러나 수영을 할 수는 없다. 깊은 물은 빠질 위험이 있다. 그 대신 이를 이겨내면 수영을 잘 할 수 있지 않은가. 사람은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 함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고난이 그대를 옥으로 만든다 함도 이를 가리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인이라는 위인은 모두 역경에서 몸을 일으켰다. 물론 역경에 처한 자가 모두 위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위인이 나오면 '반드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역경에 처한 자들 중에서 나왔다. 이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역사를 읽어보라. 또 위인의 전기를 읽어보라.

나는 잠시 이 진리를 예증하는 의미에서 맹자를 인용하도록 한다.

맹자 왈, 순은 밭에서 기용되었고, 전열은 성벽 쌓는 틈에서 등용되었고, 교격은 생선과 소금 파는 데서 등용되었고, 관이오는 옥에서 등용되었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시정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일을 맡기는 명을 내리면 반드시 먼저 그들의 심지를 괴롭히고 그들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드는데,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의 성질을 참아서 그들이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과오를 저지르고 난 후에야 고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변민하고 생각으로 달아보고 난 후에야 행하고, 안색으로 나타내고 음성으로 발하고 난 후에야 안다. 들어가면 법도 있는 세가와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나가면 적국과 외부에서의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나 멸망한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야 후환에 살고 안락에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읽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략 그 의미하는 바의 요점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순(舜)·전열(傳說)·교격(膠鬲)·관이오(管夷吾)·손숙오(孫叔敖)·백리해(百里奚)는 고대 중국의 위인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인 인류의 은인이다. 그런데 그 6명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미천한 데서 나왔다. 순은 백성, 전열은 토공, 교격은 생선장수, 관이오는 죄수, 손숙오는 어부, 백리해는 서민이었다. 이러한 미천한 지위에서 모든 간난과 고통을 맞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그 덕분에 일국의 제왕이 되기도 하고 일국의 수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맹자의 간난·곤고에 대한 견해이다. 즉 맹자의 문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늘의 악의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바로 하늘의 호의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식의 견해이다. 대장장이가 쇠를 용해로에 넣어 달군 뒤 이를 집게로 집고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은 쇠를 증오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쇠를 일본도로 위대하게 만들려는 호의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대장장이는 쇠의 장래를 위해 비록 쇠에게는 일시적인 불편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용해로에

넣어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하늘은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그를 먼저 역경에 처하게 하고 심지를 괴롭히고 근골을 피로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용해로와 쇠망치를 거치지 않고 일본도가 된 쇠는 없다. 간난과 곤고를 맛보지 않고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 이는 맹자의 위대한 발견이다. 인생에서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실로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역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인생은 간난과 고통, 곤고와 결핍에 놓여야 비로소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생각을 해야 비로소 발분하고, 발분한 뒤 행할 것이 있으며, 행하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험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성공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수학에서는 ‘제로’는 몇 만개 더해도 ‘제로’일 뿐이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실패는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에 도달한다.

따라서 먹고 입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자유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는 좀처럼 위인이 나오지 않는다. 저 열대지방에 있는 토인들 중에서 위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의식주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부잣집 자식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위환경이란 열대지방을 연장시킨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절대’라고 해도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보라. 만약 저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부유했다면 유럽 전체를 전율케 할 정도의 위인이 되었을까? 또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처음부터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역경은 비관의 씨앗이 아니라 낙관의 씨앗이다. 왜냐하면 역경에 처함으로써 적어도 장래 위대해질 수 있는 소질, 아니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가 모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격은 있다. 그 자격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그 자격을 활용한 자는 고등학교·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경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그 역경을 활용하면 그는 국가의 충신이 되고 인류의 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경에 처해 이를 비관하고 의기소침해져서 자포자기에 빠지는 자는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쓰레기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만, 위인은 ‘역경에서도’가 아니라 ‘역경에서만’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부유한 자제들로부터는 ‘얼간이(凡藏)’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유한 자제들이 얼간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그 지위를 버리고 주위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역사상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보라, 저 석가는 왕태자로서 태어났다. 그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위대해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옥에 가는 길은 넓고 천당으로 통한 길은 좁아서, 만약 석가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그는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평평하고 넓은 길을 버려야 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왕태자 지위를 버리고 심산계곡에 들어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처절하게 맛보았다. 그 결과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역경에 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불행 중 최대불행이다. 따

라서 저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부친이 사방팔방을 정복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던가?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천하를 다 정복해 버리면 내가 할 일은 없을 텐데

라며 한탄하고 너무 걱정된 나머지 졸도했다는 말까지 있지 않은가.

남자로 태어나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작은 역경에 처해 이를 활용하고 개척하는 것은 궁리하지 않고 자신을 비하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기회이다. 계기이다. 저 순이 일개 백성에서 제왕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요(堯)라는 현군을 만난다는 계기가 필요했다. 저 관이오가 일국의 재상이 되기 위해서는 환공(桓公)의 발탁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역경에 처한다는 것과 기회를 얻는다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후 각자의 강한 정열과 끈은 결심만 있으면 반드시 위대해질 수 있다.

반도청년 제군들, 제군들에게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바로 제군들의 절호의 기회이다. 제국의 비상시가 바로 제군들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다. 이 기회와 계기를 꼭 붙잡아 용감히 나아가 자신이 희망하는 신천지를 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물론 내선일체는 30년 전부터 있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나미(南) 총독에 의해 이것이 정식으로 표방되기까지는 분명치 않은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 표방에 의해 우리에게 황국신민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열린 것이다. 이는 제군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천황(大君)을 위해 태어나
- 2) 천황을 위해 일하고
- 3) 천황을 위해 죽는다

라는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될 수 없다.

그 대신 이러한 정신을 갖고 진정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된 자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천지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다. 즉 우리는, 또 우리 자손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됨으로써,

- 1)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을 미래 영구히 받들 수 있다.
- 2) 망하는 것을 모르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
- 3)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을 각자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다.
- 4) 자연사(自然死) 외에 인간사(人間死)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인간사라는 것은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세계적 위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열리게 된다.

등등의 영광을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을 갖고 대일본제국의 진정한 신민이 되어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

가? 바로 청년 제군들이다. 강한 열의를 갖고 굳은 신념으로 불굴의 결의를 가질 수 있는 청년 제군들이다. 제군들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제군들은 모름지기 자중하고 마음을 다잡아 결의하고 용맹하게 전진하여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를 위해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 받들고, 팔굉일우의 대이상의 실현을 향해 모든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라. 우리 일본의 야마토 다마시(大和魂)⁷³⁾에서 보자면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신자(臣子) 된 자의 본분인 동시에 죽는 그 사람에게는 무한한 행복이다.

(중략)

이상은 일본정신 또는 야마토 다마시의 정수를 노래한 것이다. 읽고 그 의미를 알고 또 이를 체득하고 실행하면 그때부터 제군들은 진정한 일본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제군들이다. 청년 제군들 외에는 없다. 그래서 국가는 청년 제군들을 중히 여겨 제군들에게 나라의 장래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한나라의 거울이다. “그 나라의 청년을 보여주면 그 나라의 장래를 점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니,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청년에게 국가의 장래를 담당시키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청년만능시대이다.

잠시 독일의 예를 살펴보자.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장래의 독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청년 제군들에게서 찾는다. 우리가 미래의 독일이 동경하고 또 기대하는 것을 제군들이 관찰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강대한 독일을 바란다면 먼저 제군들이 강대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힘있는 독일을 욕구한다면 먼저 제군들이 유력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명예로운 독일을 희망한다면 먼저 제군들이 그 명예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질서 있는 독일을 눈앞에서 보고 싶다면 먼저 제군들이 질서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다시 저 충성스러운 독일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제군들 스스로 충성을 배워야 한다. 이 나라의 그 어떠한 덕행이라 해도 제군들 자신들에 의해 먼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힘이라 해도 제군들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위대함이라 해도 제군들의 단련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군들은 미래의 독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군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이 독일이 훗날 있을 수 있도록, 또 있어야만 하도록 제군들이 있어주기를 요구해마지 않는다.

우리 일본과 독일은 국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다시 저 충성스러운 독일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운운” 같은 것은 일본에는 맞지 않다. 절대 맞지 않다. 그러나 진리에 두 가지는 없는 법이다. 이 중에서 맞지 않는 것만을 떼어낸 뒤 ‘독일’이라는 글자 대신 ‘일본’이라고 넣어 읽어보면 청년 제군들을 크게 발분케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나는 대일본청년단 이사 오쿠무라 요시카즈(奥村喜和) 씨가 저술한 『세계사의 전환과 일본청년의 신념』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자. 그는,

73) 일본 혼.

그리고 이러한 신질서 건설의 혈전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청년 이외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청년이야말로 이 세계유신전(世界維新戰)에서의 결사대이다. 순진하고 감격 넘치는 일본청년의 꺾기 없이는 결코 이 신질서를 건설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함부로 기성 대가, 기성 명사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자. 삶을 사리사욕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씨에 감동해서 일하고 용약(勇躍)해서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것은 오직 청년의 순정뿐이다. 일어나서는 만타(萬朶)의 벚꽃이 되고, 응고되어서는 백련(百鍊)의 쇠가 된다. 청년 대중이야말로 조국 일본의 친위대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스스로 진정 순화(醇化)되어 야마토 마음과 조국애가 그 정치를 쇄신하고 그 경제를 재건할 때야말로 진정한 협동과 정의와 진보가 지배하는 동아협동체가 건설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일본청년의 기개를 세계에 현시하라.

(1939년 9월 15일 오후 8시 각필(欄筆))

〈출전 : 徐椿, 「半島青年よ奮起せよ」, 『總動員』第1卷 第5號, 1939년 10월, 36~40쪽〉

2) 징병제 실시와 반도인의 감격

대동아전쟁 개시 이래 반년이 지나면서 황군(皇軍)은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반(反)주축국 진영은 적막하고 소리 없는 오늘날, 지난 5월 8일의 각료회의에서 반도 동포에 대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1944년부터 징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결정을 내린 일은 반도 통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사(盛事)이고, 반도 동포로서는 국방의 중책을 똑같이 짊어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의 성업에 참가하는 길이 열렸다는 데 무한한 영광과 명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정 33년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반도 동포에게 이 영광을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군의 본의에서 보건대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며, 특히 대동아신질서가 성취되려고 하는 이때, 이런 영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반도에서 태어난 민초들은 크나큰 성운에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반도 동포가 역대 총독의 지도로 능히 황국신민으로서 연성(鍊成)해온 지금, 일본 내지의 동포와 함께 군국(君國)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반도 동포가 33년 전의 병합 이후 글자 그대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실천에 철저히 임했다는 점, 1938년 지원병제도가 창시된 이래 매년 양호한 성적을 올려 '반도인(半島人)⁷⁴⁾ 청년층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가장 든든한 모습이 실증되었다는 점, 또 근래 10년 동안 만주사변과 '지나사변(支那事變)⁷⁵⁾을 거쳐 대동아전쟁으로 이행되

74) 조선인.

75) 중일전쟁.

는 동안 반도 동포는 그 현시(顯示)한 애국의 적성(赤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일본 내지인 동포와 함께 일신을 군국에 바쳐 명실 공히 황국신민으로서 봉공의 지성을 다하려는 기운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보답을 받아 마침내 반도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반도 동포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는 병역의무의 분담으로 명실 공히 동아의 지도자인 우위를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더 없이 기쁜 것은 반도에 징병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반도 동포에 대해 당국이 확신을 갖고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책을 맡았을 때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 지금 반도 동포의 기쁨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영단(英斷)과 이 만큼의 신뢰를 받은 이상 꼭 그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영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우선 반도의 모든 청년들이 강인한 황군의 일원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다. 일본 내지인과 다름없는 정예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체력도 필요하고 기술적 요소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체력이나 기술보다 정신이다. 일본의 병사가 강한 까닭은 결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3000년 동안 키워온 일본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신의 진수는 1882년 1월 4일 군인에게 내리신 총절·예의·무용·신의·검소라는 5개조 성유(聖諭) 안에도 있다. 그것은 곧 멸사봉공·진충보국의 정신이고, 난코(楠公)⁷⁶⁾의 칠생토적(七生討賊)⁷⁷⁾의 정신이며, 생사를 초월한 9군신(軍神)의 정신이다.

그야말로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의 정신이 있기에 “천황을 위해 무엇이 아깝겠는가. 짙은 벚꽃, 떨어져야 보람이 있는 목숨이기에”라는 정열과 각오가 있기에 영국·미국의 3만여 척의 전함도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고, ‘싱가폴’·‘코레히도르’의 요새도 갑옷 소매만 약간 스쳐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 같았다. 따라서 반도 청년은 이 일본정신을 체득해서 천황귀일의 대신념을 키우고 늘 목숨을 천황에게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싸움에 임해서는 충성용맹한 병사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적 환경의 일본화가 필요하다. 즉 가정의 강화·사회의 견실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유용한 재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모친의 감화와 훈육의 힘이 크게 필요하다. 그만큼 모친의 책임은 중하고 영웅호걸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군신은 모친에 의해 만들어진다. 황국의 어머니 없이 황국의 건강한 병사는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군신이 태어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모친의 교육·여성의 연성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반도 부인이 지덕체를 겸비한 강한 군국의 모성을 갖추기 위해 수양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일반 사회인들도 이를 돕고 육성시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⁷⁸⁾의 습득에도 한층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개병(國民皆兵)이 된 이상 국어의 능통·미숙을 불문하고 징병 적령자는 모두 병사가 된다. 하지만 국어를 충분히 습득함으로써 일본적 정신·일본적 감정도 체득할 수 있으며, 또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인 이상 국어를 몰라서는 도저히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나아가 부름을 받고 입영했을

76)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1336).

77)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한 말인 ‘칠생보국(七生報國)’을 의미한다. 즉 일곱 번(영원히) 다시 태어나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다시 태어나 적을 무찌르겠다는 뜻으로 사용.

78) 일본어.

때에도 국어를 모르거리는 충분한 봉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신체제 아래 황군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짊어지게 될 청소년은 물론이고 관민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나 학교·단체 등이 일체가 되어 최단기간에 청소년의 정신수련·국어 습득에 전력을 기울여 이 중대한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1942년 7월 13일 각필(欄筆))

〈출전 : 徐椿, 「徵兵制實施と半島人の感激」, 『朝鮮』 第326號, 1942년 7월, 55~57쪽〉

16. 송금선(宋今璇)

1) 군국의 어머니 - 반도여성 책무도 크다

복택영자(福澤玲子, 후쿠자와 레이코)⁷⁹⁾ 여사

“정말이에요? 이렇게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덕성여자실업학교 교장실에서 후쿠자와(福澤玲子)씨는 기쁨에 못이기는 얼굴로 징병제도 실시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감격이 가슴에 벅차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이야말로 반도 역사를 장식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광영에 빛나는 날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바랐던 감격이 이제야 우리들에게 찾아왔으니 그 저 힘껏 외쳐서 이 기쁨과 감격을 2천4백만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황국신민(皇國臣民)이 완전히 되었다는 자랑과 의무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반도 민중의 시국에 대한 태도는 더욱 철저히 해서 내 아들, 내 동생을 나라에 바쳤다는 절실한 애국심이 북돋아질 것임에 따라 일천만 반도여성들로 군국의 여성으로서 그 책임의 중대함을 더욱 굳세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는 반도 지식여성들은 제일선에 서서 훌륭한 군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하며 여학교의 생도들도 어디까지 군국의 어머니로서 교육하여야 될 것입니다.”

〈출전 : 宋今璇 「軍國 어머니-半島女性 責務도 크다」, 『매일신보』, 1942년 5월 10일〉

2) 징병과 어머니의 길 - 국어·자녀·봉사·신앙

덕성여자실업학교장(德成女子實業學校長) 복택영자(福澤玲子)

결전 제3년 제1주에 들어서 반도출신으로선 최초의 학병에 대한 전형검사(詮衡檢査)가 시작되어 그

79) 송금선(宋今璇)의 창씨명.

합격을 기하는 씩씩한 젊은이의 기상은 충심(衷心)으로 믿음직스럽고 장도(壯途) 또한 기대되는바 지극히 크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 오늘 아침 새해를 맞이하고 생각드는 바 제일 큰 것은 장래할 군국의 어머니들의 자태입니다. 더구나 매일마다 장래 군국의 모성이 될 생도들을 상대로 연성(鍊成)의 길에 정진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층 더 중대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태평양전쟁이 개전되는 날 이후 제가 취하여 온 군국의 어머니의 양성 방도를 돌아보건대.

제1. 국어상용의 순치(馴致)⁸⁰⁾

무엇보다도 국어사용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황국의 국심이 길러질 것이니 이와 같이 국어를 통하여 도의(道義)를 근본으로 하는 일본정신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군국의 모성이 국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이겠습니까 아름답고 명량하며 그리고 순정한 국어상용의 순치의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2. 뚜렷한 자녀관의 수립

군국의 어머니는 전날 가졌던 자녀에 대한 묵은 관념을 타파하여야 될 것입니다.

흔히 자기가 낳은 자녀라 '내 것'이라는 애착심이 생기기 쉬우나 징병제도 실시를 앞두고 이미 지원병제도가 시행되는 금일에는 이러한 자녀관은 일체 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항공하옵게도 위로 '천황폐하'의 고굉(股肱)⁸¹⁾이 되고 국가의 간성(干城)⁸²⁾이 되면 그들의 원호(援護)의 요직에 설 자녀임으로 촌호(寸毫)도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개신(改新)하여 어디까지든지 폐하의 적자(赤子), 국가의 큰 보물임을 깊이 느끼고 우리는 맡아서 양육해 드리는 데 불과하다는 신념을 굳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3. 정성스럽게 받들어 모시는 마음의 연성(鍊成), 군국의 어머니는 어디까지든지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것이니 본시 일본정신의 핵심도 이어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정성스럽게 섬기고 이바지하는 마음을 일본의 모성은 자나 깨나 잊어서는 아니한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은 물론이요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바지할 것입니다. 천황폐하께 귀일(歸一)시키는 마음을 고이고이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제4. 신앙심의 배양

군국의 어머니는 견고하고 용감하며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갖게 하는 신앙심의 배양이 또한 귀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호국가(鎭護國家)⁸³⁾의 종교신앙이 또한 절대로 필요한 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니 종교는 우리를 본연의 상에 돌아가게 하는 '달마(達摩)'가 되게 하는 것이니, 오온개공(五蘊皆空)의

80) 짐승을 길들임. 점차 어떠한 목표(目標)의 상태(狀態)에 이르게 함.

81) 다리와 팔, 다리와 팔 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이르는 말.

82)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83) 진호(鎭護) : 난리를 진압하고 나라를 지킴.

진리확호한 사생관(死生觀)의 수립이 따라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연상합(因緣相合)의 교리의 참뜻을 오득(悟得)하여 애착과 집념을 떠나 망상을 물리쳐나가는데 모성이 즉 군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군국의 어머니를 양성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상 몇 가지 방도를 적었사운데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오면 군국의 어머니는 국어에 능통하여 국심을 체득하고 묵은 자녀관을 타파하여 삼가히 받들어 이바지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길 때 군은 신앙심으로 망상된 애착과 집념을 떠나 오온개공의 교리로 큰 각오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출전 : 福澤玲子, 「徵兵과 어머니의 길-國語·子女·奉仕·信仰」, 『春秋』 第5卷 1號
1944년 1월, 70~71쪽〉

17. 신봉조(辛鳳祚)

1) 조선에도 징용령

이화여고 교장 신도순(辛島純) 씨⁸⁴⁾ 답(談)

태평양전쟁은 금년이야말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전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선장병들은 정말로 충후국민으로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치열한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충용무쌍한 우리황군에게 많은 비행기와 병기와 군함을 보내준다면 곧, 저 전쟁은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제일선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요구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탄환과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해서 우리 반도에서도 금년부터는 징병령이 실시되어 반도청년들도 황군의 일익으로 활약하게 되고 벌써 대학, 전문, 고등학교 학도들도 일선에 출진하고 있습니다. 충후국민으로서 태평양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임무는 오로지 생산량 증산하여 전력을 증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반도에는 전력증강을 위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반도뿐 아니라 남양의 여러 섬에는 무진장으로 개발되지 않은 철이라든지, 금속물이라든지, 석유가 땅속에 매장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서 전력증강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반도에서도 이번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태평양전쟁에 이바지하고자 내지와 같이 국민징용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일본국민은 다같이 징용되어서 국운을 걸고 싸우는 결전을 위하여 생산확충의 전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충후국민은 누구 한 사람 늙고 유한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치없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비실비실 늙고 전쟁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대지에서는 벌써 다른 내지인 청장년들이 군무에 소집되고 한편으로는 징용에 의하여 도시나, 농촌이나, 공자으로 진출하여 긴급생산에 중

84) 신봉조(辛鳳祚)의 창씨명.

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에서는 내지의 청장년과 같이 전력증강에 이바지하게 된 것은 일본국민으로서 영광된 일이며, 앞으로의 책임이 중대한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동원에 의해 너도나도 징용되거나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긴급생산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한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비겁한 오명을 입을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제일선장병들이 부르짖는 ‘비행기를…… 한 대라도 더 보내달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하다면 한사람도 빨리 국민동원에 협력하여 전력증강에 정진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아직 징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성이 일선으로 생산확충방면으로 진출한 뒷일을 남성에게 지지 않는 마음으로 해나갈 각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성이 하던 일 가운데 무슨 일이던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지에서는 벌써 여성들이 우편배달도 하고, 역(驛)개찰구에서 차표를 적는 일까지 아직 남성들이 하고 있는 각 부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도여성들도 다같이 응소된 각오아래 국가에 정신하여 봉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영에게 지지않는 비행기와 군함을 만들어내서 원수를 무찔러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출전 : 辛島純氏談 「조선에도 징용령」, 『매일신보』, 1944년 1월 9일〉

18. 유각경(兪珌卿)

1) 시국과 여성의 각성

조선여자청년회 총무 유각경

현 사회에서는 일반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여성에 대한 관념이나 비평이 일정치 못하여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니 “약자여. 네 일힘은 여자”이니 하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향다반 듯고 있으나 기(其) 반면에 “동차(童車)를 끄는 여자의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도 없지 않으며 일(一) 국가의 강약은 그 나라의 어머니를 보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본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는 약하너 강하니 종속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일개의 인격이요 여성도 일개의 인격이나 그 두 인격은 그 본분이 각각 다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두 인격의 본분이 다름에 비로소 두 인격의 고귀한 점이 있으며 각자가 충분히 그 본분을 직힘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이 합할 때에 비로소 국가사회는 유지되고 국가 발전의 기초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하 비상시국에 있어 대체 여성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으로서 신중히 생각

해 볼 문제입니다. 급한 대로 직접 총을 메고 전지(戰地)에 나가서 장병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훌륭한 여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역시 여자에게는 여자의 본분이 있다고 봅니다.

총을 메고 전지에 나가 적을 물리치는 것은 남자에게 맞기여 남자다운 의기로 충용을 다- 하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후고(後顧)에 근심이 없도록 총후(銃後)를 굳게 지키는 것이 여성으로 국가에 대한 충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기(其) 방면에 진력하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후는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것이 다음 계단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시엿 것이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사변으로 말하여도 출정(出征)한 장병의 의기와 정예한 무기로서 조만간에 황군의 대승리를 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 남자에게 맞기고 총후 여성의 할 바로 말하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지키어 가산을 보관하고 제2세 국민을 고상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로 길러 놓는 것이 여성의 각오할 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더욱이 오늘에 있어 지고병이 실시되어 국가의 장래의 성쇠가 오로지 제2세 국민의 심신 건강 여하에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명이 중대하며 따라서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차(童車)를 미는 손이 세계를 좌우할 특권이 있음을 자랑할 만한 일인 줄 압니다.

둘째로는 근검절약적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절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전시에 있어서는 일층 주의할 것인 줄 압니다. 구주대전에 불란서 여성들은 '단고(短袴)회(會)를 조직하여 치마의 길이를 짧게 하여 곤란을 구하였다'는 말이었는데 금일 우리가 비상시를 당하고 보니 비로소 불란서 여자들의 근검한 정신을 깨다른 것 같습니다.

치마 길이를 1~2촌(寸) 짧게 한다고 이것을 막대한 군비와 희생에 비교한다면 실로 구우(九牛)의 일모(一毛)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가정에서 쓰는 이불(침구)로 말하면 엷재서 동정이 있고 것이 있고 푸르며 붉은 것으로 만들어 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에 만일 전쟁이 나면 그 이불을 뜯어서 병정들이 옷을 하여 입으며 그 동정을 끈어서 흥떡 모양으로 어깨에 걸치고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또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유기(鑰器)로 말하면 전쟁이 날 적에 그것으로 총도 만들고 군수품으로도 쓰기 위해서 그리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네 주부의 각오 이리까. 앳가도 말한 바와 가치 불란서 여자들이 치마를 짧게 하여 국난 구조의 한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여기에 여자 독특하고 정밀한 정신이 숨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자의 진정에서 올어난 이 치마기리 한 치가 당시 불란서의 비상(非常) 전(前), 경제에 얼마나한 반향이 있는지 알냐고도 아니하나 만일 이 '단고회' 회원의 적성(赤誠)이 불란서의 곤란을 구하는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서 총후의 가정을 지켜 나갑시다.

그래서 금일 총후에 반도 여성도 사치한 의복을 질박한 것으로 갖치며 색의(色衣)를 장려하며 금전과 시간을 동시 절약하여 저- 불란서 여성과 같은 업적을 남긴다는 적성으로 행하여야겠습니다. 조선 속어에 집이 가난하면 어진 어머니를 생각하고 국가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고 한 것을 보면 고금을 물론하고 곤란을 당하면 총동원이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것을 깨달겠습니다. 그런 고로 금일 같은 비상시기를 당한 총후 여성의 책임이 더욱 중대한 것을 각오하고 내선일체화하여 가정으로 국가

방침하에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총후 국민된 의무요 따라서 시난(時難) 극복에 어진 저 어머니가 되고 장병에 자모(慈母)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출전 : 俞珏卿, 「時局과 女性的 覺醒」, 『三千里』 第10卷 第8號, 1938년 8월, 194~196쪽〉

2)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야마토 다마시

여자기독교청년회 유각경

조선에도 징병제도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보다 감격하기는 처음입니다. 어머니된 사람으로서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조선의 어머님들로서 일본의 어머님들을 근본적으로 본받을 때가 이때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개인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라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길러서 국가에 바칠까 우리 어머님들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빛나는 무훈을 세울 수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스런 의무를 차지하게 된 것만 좋아 날뛴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어머니로서 갖출 점을 마음속 깊이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야마토 다마시(大和魂)’를 몸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이 정신을 직접 장래군인이 될 어린 아이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게 교육시켜야 될 줄 압니다.

〈출전 : 俞珏卿,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야마토 다마시」, 『매일신보』, 1942년 5월 12일〉

3) 당신들도 우리도

8월 1일로서 반도에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반도 청년도 황군의 일원이 되어 명예스런 제국군인으로서 봉공하게 된 것은 실로 광영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징병제실시에 있어서 어머니로서 나도 아들 하나를 나라를 위하여 바치게 된 것을 더욱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군인의 가격을 얻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된 우리로서도 지성으로 아들의 장래와 국가를 위하여 건강히 길러서 국가에 내놓을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는 가정의 어머니뿐 아니라 유치원의 원장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여 명이나 되는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늘 징병제가 실시된 것을 가르치며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국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를 늘 기원하는 우리어머니들의 정신을 받아 반도의 장정들은 참말 황군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할 것입니다.

(말씀한 분은 안국유치원장(安國幼稚園長))

〈출전 : 俞珏卿, 「당신들도 우리도」, 『매일신보』, 1943년 8월 7일〉

19. 유광렬(柳光烈)

1) 징병제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1.

조선동포에게도 19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키로 5월 8일 중앙정부 각의(閣議)에서 결정되어 9일에 중앙의 정보국과 조선총독부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 발표를 보자 반도민중은 한결같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하에 국방의 중임(重任)을 나눠 지게 된 광영에 감격하고 역대의 통치당국과 군당국이 잘 반도동포를 지도계발시키어 금일의 광영에 균점케 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다. 실시 징집되기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음으로 총독부에서는 준비위원회를 두어 만만(萬般)의 준비를 유감(遺憾)없기를 기하게 되었거니와 민간에서도 국민일치로 이 중임에 대하여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할 바인데 이제 징병제의 유래와 기타준비에 대하여 잠깐 고찰하여 보려 한다.

2.

일본에서 징병제가 실시되기는 1873년 1월 16일이었으니 그때까지는 각 번(藩)의 병사는 전국을 통하여 40만이었으나 중앙의 근위병은 겨우 4백에 불과하였다. 그때는 군사는 무사계급의 특권이었으니 일반농민이나 상인은 군사로서 국가에 봉공하려고 그 길이 열리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때에 특히 조슈번(長州藩, 현 아마구치현(山口縣))에서 제일 먼저 족경(足輕, 줄병)출신이나 일반농민과 상민도 단체 훈련을 시키어 병단을 조직하여 기병대(奇兵隊)라 칭하고 이를 주재하던 이는 후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지사가 된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이요, 이 뜻을 받아 활약하던 이가 오무라 마사지로(大村益次郎)으로서 교토(京都)에 병학교(兵學校, 현 육군사관학교 전신), 요코하마(橫濱)에 어학소(語學所), 오사카(大阪)에 조병창(造兵廠), 우지(宇治)에 화약제조소, 야와타(八幡)에 병기화약고를 세우게 되었고 줄병출신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은 사이고 쓰쿠미치(西郷從道)와 함께 구주(歐洲)를 순력(巡歷)하여 보불전쟁(普佛戰爭)⁸⁵⁾ 직전 병제를 상세히 시찰하고 귀조(歸朝)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의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주장 실시케 되었다. 지금은 사민평등의 국민개병이란 말이 당연이상의 당연이요, 그 말을 말하는 것부터가 연문(捐文)인 듯 하지만은 당시에는 국방은 무사계급의 특권으로 전국민에게 개방되지 아니하였던 터이요, 더욱 같은 병대중에도 사족(士族)의 자손인 사족병과 평민의 자손인 줄족병의 구별이 있었으므로 세인들은 야마가타(山縣)가 사민평등의 국민개병을 주장함은 그가 족경(줄병)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개인공격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마가타는 일체의 세평(世評)을 개의치 아니하고 1872년하에 징병제제정의견서를 기초하여 반세(半歲) 후에 구체화하게 한 바이다. 이리하여 1872년 1월 28일에 대혁신의 징조칙(徵詔勅)이 강하(降下)되고 동일에 국민개병의 필요를 역설한 태정관고유(太政官告諭)가 발표되었는데 그중에 '범천지간(凡天地間)에 일사일물(一事一物)이라도 세

85) 프로이센 - 프랑스전쟁(Franco-Prussian War)

(稅) 아니됨은 없어서 국용(國用)에 충당하는데 (중략) 서인(西人)은 이를 칭하여 혈세(血稅)라 하니 그 생혈(生血)으로써 나라에 값을 말함이라 하여 혈세라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미나미(南) 총독 이야기 중에 ‘일본국민의 병역관념은 의무라기보다 차라리 특권이라는 범주(範疇)에 속할 것으로 이것은 국체의 본의를 얹으로써 명료하다’ 한 말은 물론 일본군인은 대원수폐하의 고굉(股肱)이 되는 광영을 입는 데에 그 대의가 있을 것이나 메이지유신이라 국민개병이 되기까지 서상(叙上)의 경로를 볼 때에 다른 일면의 함축도 엿볼수 있는 바이다.

3.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무사를 인간최고의 영예로 알아서 ‘사람은 무사이요. 꽃은 요하(櫻花)’라는 말까지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특히 이조(李朝)에서는 무인은 문인의 앞에 수종(隨從)되는 지위에 있었으니 상신(上臣, 문관대신) 앞에서는 지위가 대장에 이른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름에 ‘소인’이라 하고 군무를 총괄하는 병조판서는 문관이 주로 그 지위를 맡았으며 이에 따라 문신은 무신을 전통적으로 경멸하는 풍습이 있었다.

필자가 들은바 한 삽화에 의하면 정조대왕(正祖大王)이 총애하시는 시측인(侍側人)을 발탁하려하나 당시에는 과거(현재 고문시험 : 高文試驗)의 길 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함으로 정조께서는 그에게 ‘네가 과수(科數, 운명)가 없는 모양이니 무과를 보는 것이 어떠냐’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황송하오나 신의 집에는 무□(武□)이 없사옵니다.’하여 자신의 가계가 문신의 계통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아뢰었다는 말이 있다. 고위의 무신에 대하여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신보다 부족하게 알았거늘 하물며 일반병졸에 대한 관념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았었다. 일례로 문록역(文祿役)⁸⁶ 때에 병조에서 선병안을 보니 ‘개려각시정백도(皆閭閣市井白徒) 서리유생거반(胥吏儒生居半) 임시점열(臨時點閱), 유생구관복주시권(儒生具 冠服持試券), 이재평정건(吏裁平頂巾), 자소구면(自懇求免)’ 운운한 것은 당시 상신이던 유성룡(柳成龍)의 저(著)인 『징비록(懲毖錄)』에 있는 바이니 이것은 유생(儒生)이나 서리 등도 병졸은 되지 않을 만큼 인(認)하였던 것이며 그 후 기다(幾多)한 변동이 있었으나 병합전, 군대해산 때까지 징병제이었고 이 병졸들은 왕십리(往十里), 청엽정(靑葉町) 등지에 하나의 특별부락을 이루어 군□촌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것을 일본의 무사으로써 인간최고의 영예지위로 알던 관념과 비교하면 심히 거리(距離)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메이지유신 이래 국민개병이 된 후 1882년에 메이지 천황께옵서, 군인에게 내리옵신 칙유(勅諭)에는 ‘짐(朕)은 여등(汝等)을 고굉(股肱)으로 믿고 여등은 짐을 두수(頭首)로 양(仰)함에 이르러 그 친함은 특히 깊을 것이다.’ 하옵신 성지(聖旨)를 배(拜)하건대 군인은 모두 폐하께 봉임(奉任)하는 고굉이 되는 바이며 더욱 헌법 제11조에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統帥)함’ 이라고 소시(昭示)되어 있음으로 명백한 바이요. 일단 대외전쟁에 출전하여 전사를 하면 장(將)이 병(兵)이나 똑같이 그 이름은 반드시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향사(享祀)되어 황송하옵게도 지존께옵서 어친배(御親拜) 베푸시는 영광을 입게 되는 바이다. 이것은 제 외국 의 병이 전사하면 무명의 일병으로 장거(葬去)되는 바와도 다르고 일본의 번병(藩屏)이나 이조의 용병

86) 임진왜란을 뜻함.

(傭兵)과는 소양(霄壤)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이렇게 광영있는 중대한 임무를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데 특히 다가하시(高橋) 조선 군참모장은 ‘군으로서의 이때에 특히 학교교련, 청년훈련, 지원병 훈련 기타 일반청년의 수양 및 훈련에 관하여 획기적 개선을 기대한다. 그중에도 최종시하는 것은 어칙유에 시(示)하옵신 군인정신, 취중(就中) 충절의 정신의 단련이다. 즉 신명을 군국에 봉하여 일의봉공(一意奉公)의 지성에 철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바로 이 정신에 조금이라도 결(缺)하는 바 있으면 유사(유사)의 때 하등 소용이 없는 것이다. 더욱 이것은 부단의 수련에 의하여 비로소 그 완벽을 기(期)할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 된 자는 지금부터 그 결의를 굳게 하여 자진하여 수양연찬(修養研鑽)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가정, 학교, 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는 징병제시행준비를 위하여 청소년 훈련의 중요함을 잘 이해하고 총독부 및 군의 제책에 충분협력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한 것으로 보아 준비는 청소년 자신의 것과 부형(父兄), 장상(長上)된 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신으로서 일본정신을 잘 체득할 일, 강건한 신체를 연성할 일, 상당한 훈련을 받을 것은 물론 일본인과 함께 병영생활, 전지생활을 하기 위하여 일본의 전통습관, 예의작법 등도 배워야 하며 기타 일반문화 수준도 일본인과 같은 레벨에 오르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 아직도 국민교육이 보급되지 못하였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무국에서는 교육확충을 위하여 한층 힘쓰리라하니 그 성과에 기대한다.

다시 부형과 장상된 이는 대개 4, 50내지 5, 60세로 과거 이조의 용병제도, 또는 군인을 영예로 알지 않던 시대의 구관(舊慣) 사념(思念)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금일의 황군의 본질을 잘 이해시키고 특히 모친된 이의 성인교육에 대하여 강연, 강화, 좌담 등으로 군인과 국가의 관계를 잘 이해시키어 일단 유사시에 국민적 엄숙과 성의를 보이도록 할 바이니 만일 사사로운 정에 구속되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상 자연 봉공하는 젊은 군인의 사기에 관하는 바 클 것이라. 그러므로 당국자는 청소년의 교양훈련과 병행하여 부모된 이의 이해교양에 힘쓸 바이라 한다.

5.

반도인이 군무에 복무함에 그 대의는 물론 보국의 성의에 있을 것이나 부산(副産)으로는 병마의 퇴치, 강건한 신체, 질서있는 생활, 책임관념의 증장(增長), 복종의 미덕 향상 등 인격완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조선의 청소년은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흔히 기생충, 위장병, 기타가 있는데 병영생활중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퇴치될 것이요.

2. 일정한 규율하에 단련을 받는 중에 체질이 다소 허약하던 사람도 점차 별인(別人)과 같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함은 과거의 지원병 예에서도 많이 본 바이다.

3. 질서있는 생활도 군대와 같이 규율적 생활을 하는 데는 없으니 생래(生來)의 무질서하던 사람도 이 관문을 통함으로 인하여 극히 질서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4. 책임관념의 증장, 군인정신은 책임있는 자리에서 신명을 군국에 바치기를 맹세하고 또 행하는 바이니 종래 흔히 있던 반도인의 책임관념의 결핍 운운도 개정되리라고 본다.

5. 복종의 미덕, 군문에서는 장관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나니 종래의 서구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 파생한 바 비판반대 등의 폐(弊)도 광정(匡正)되고 복종의 미덕이 양성되리라 본다.

필자는 일찍이 모장교에게 ‘어떤 자질을 제일 좋은 군인이라 할까요?’ 하는 말을 물었더니 그는 언하(言下)에 ‘제일 좋은 사람, 완성된 인격자가 제일 좋은 군인이지요.’ 하는 대답을 들었다. 위에 서술한 미덕이 양성되어 일률로 인격이 향상된다면 반도인이 자질이 향상되어 일반사회에도 한 거대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전쟁 중에는 평소보다도 약진하는 제현상이 허다하다. 그런데 반도인의 자질향상으로만 보아도 확실히 약진이 있을 것이다. 징병제 아니고는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대량적으로 구습교정과 도덕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가장 절제가 엄한 일대국민학교에 또한 한 번 들어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이에 의한 영향은 측량할 수 없다. 그중 하나, 둘을 들어보면 반도청년이 국방을 일본인과 같이 나누어 짐에 의하여 어떠한 신념이 생길 것이다. 신념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모든 활력의 원소(元素)가 되는 것이다. 세(世)에 희망을 잃은 사람같이 비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신념이 없으면 희망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구체적 일례를 들면 황군이 연전연승(連戰連勝)한 데 대하여 세인은(주로 일본인 측) 흔히 ‘반도인의 감격표현이 일본인에 비하여 차등이 있다.’ 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국가의 흥룡에 대하여 당연히 동일하여야 할 감격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반도인 즉 자신이 자질형제(子侄兄弟)가 직접 그 제일선에 참가치 못하였다는 점으로 겸퇴(謙退)도 있으려니와 사람은 아무래도 제일 친근한 데서부터 친애감(親愛感)이 더 깊고 또는 이에 따른 감격의 정서도 강도(強度), 약도(弱度)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가 할 때에 금후 반도인이 자제를 전선에 보낸 후로는 그 표현의 도가 금일의 비(比)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출전 : 柳光烈, 「徵兵制實施와 朝鮮人の 覺悟」, 『朝光』 第8卷 第6號, 1942년 6월, 28~33쪽〉

2) 해군지원병제 실시와 반도 청년의 영예

1.

5월 11일 각의에서 조선에도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여 그 예비훈련을 1943년 중에 개시할 것이 결정하였다. 내년의 징병제를 앞두고 또다시 해군지원병제의 실시를 보게 된 것은 반도 동포의 광영으로 일시동인(一視同人)의 성지(聖旨)에 감격하여 오직 봉답에 지성을 다할 바이다. 역사에 징(徵)하여 보건데 해양을 제압하는 자는 비약적 흥룡(興隆)을 이루고 그렇지 못한 자는 쇠약해졌다. 경성(京城)

해군무관부(海軍武官府) 무시(武時) 소좌(少佐)의 이야기 일절(一節)에 “영화(榮華)를 자랑하던 카르타고는 로마(羅馬) 해군에게 패하는 날부터 쇠망의 빛을 나타내었고 스페인(西班牙)은 그 무적함대가 패퇴할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의 천재 나폴레옹으로도 그 함대가 벨슨의 일거(一擧)를 받은 후로는 끝까지 재기치 못하였다. 하와이(布哇), 말레이(馬來) 근해(近海) 해전을 위시하여 남태평양 수차례의 모든 해전이 미영(米英)의 쇠멸(衰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것인가”라고 한 것과 같이 국가의 진취(進取)와 흥룡은 항상 해양의 제패로 시작하는 것이다. 로마제국은 지중해를 제패함으로 흥하였고 그 후로 무대는 대서양으로 옮겨져 일시 스페인의 전성시대를 보이었으나 영국에게 무적함대가 깨어진 후에 쇠퇴의 일로를 밟았고, 이후 100여 년을 영국이 세계 제패의 야망을 꿈꾸고 전 지구에 그 족적을 도장 찍은 것도 전혀 알레프드 황제 이래 천 이백년의 역사를 가진 해군력의 소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바이다.

이제 무대는 태평양으로 옮겨졌다. 노후하였으나 오히려 전통의 여력을 가진 영국과 렉싱턴 이래 160여년의 역사 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 풍부한 자원으로 해군을 건설하여 세계 제패를 꿈꾸는 미국과는 전후하여 태평양상에 그 독아(毒牙)를 이(肆)한 이래 인도(印度), 말레이(馬來), 동인도(東印度), 필리핀(比律賓)이 모두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이번 태평양 전쟁으로 점차 탈환하여 동아 제민족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도의(道義)의 세계를 건설하는 중에 있다. 저 미영은 말하기를 ‘열대(熱帶)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여 동아침략의 마수가 200년 동안 집요히 쉬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세계의 가장 요긴한 부원(富源)이 열대에 있기 때문이요, 특히 태평양에 산재한 제 도서(島嶼)에 있기 때문이다. 이 태평양을 지배함에 의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은 저들의 순시(瞬時)⁸⁷⁾도 잊지 못하는 야망이다. 황국 해군은 서전(緒戰)이래 연전연승으로 적 미영을 쫓고 태평양 위에 불패의 지위를 굳게 하였으나 적 미영은 오히려 반공(反攻)의 계속을 쉬이지 아니하니 그것은 작년 8월 7일에 시작한 남태평양의 해전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무수한 해전과 금년 3월 27일의 북양(北洋) 최초의 해상회전(海上會戰), 동 28일의 뉴기니아섬 오로만(灣) 공세 등 쉬지 않는 해전에 의하여 보아 태평양은 금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대소 무수한 결전이 계속되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아시아의 동방에 묘망(渺茫)⁸⁸⁾하게 열린 태평양은 그 면적이 1억 8천21만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해양의 반분을 점한 바이다.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이는 포르투갈(葡萄牙)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으로 그는 1512년에 필리핀(比律)에 상륙하였다. 선시(先時)하여 포르투갈인은 인도양 방면으로 태평양에 출하여 인도의 ‘고아’를 얻고 이를 근거지로 하여 자바, 말라카를 정복하고 광둥에 도착하여 중국과 통상을 연 것이 1517년이요, 그 후 1543년에는 아국 종자도(種子島)에 왔었고 스페인은 남미의 대부와 중미를 판도(版圖)로 한 후 동으로부터 태평양에 진출하여 필리핀 제도를 점령하고 마닐라를 근거지로 보르네오, 뉴기니아, 라드론 제도, 카로린 제도, 솔로몬 제도를 지배하에 두었다. 그러자 1571년, 17세기에 들어

87) 극히 짧은 시간. 삼시간.

88) 강이나 바다가 끝없이 넓어 아득함.

네덜란드(和蘭)은 포르투갈, 스페인 양국의 식민정책이 원주민의 마음을 잃은데 힘입어 점차 양국의 영토와 상권을 탈취하고 1607년에는 아국과도 통상을 열어 자바(현재 우리 점령지의 동인도의 일부)에 ‘빠타비아’ 부(府)를 세워 이를 근거지로 전 남양군도를 점탈하고 일시는 대만까지 그 영토로 넣은 일이 있었다. 한편 영국은 1600년에 동인도회사를 열어 태평양에 진출하고 1609년에는 아국과도 통상을 열었다. 아국인도 서태평양에 위세를 떨치던 왜구선(倭寇船)이든지 태합(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인허(認許)한 어주인선(御朱印船)이든지 해외에 도항(渡航) 발전이 허다하였으나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는 천초(天草)의 난(亂) 후 국인(國人)의 도항을 금하며 네덜란드인, 중국인 외에는 외국 무역을 금지하였으므로 아국인의 태평양 상의 세력이 전혀 쇠미(衰微)하였었다.

18세기에 들어오자 영국은 인도경영에 전심하고 일시 태평양방면에 손을 넣었으나 그것을 평정한 후에는 호주(濠洲) 착식(拓殖)을 개시하였다. 러시아(露西亞)는 17세기말 시베리아(西伯利亞)방면으로부터 태평양으로 나와서 ‘가사린’ 2세 시대에 치시마(千島) 근해를 심검(深檢)하여 그 대부분을 점령하고 1806년에는 아국에도 통상을 구하였다. 19세기가 되자 영국의 호주개척은 크게 발전하는 한편으로 1824년에는 싱가포르(新嘉坡), 1842년에는 홍콩(香港)을 얻고 위해위(威海衛)를 조차(租借)하여 태평양 상에 최대세력을 확립하고 1900년에는 호주연방에 자치를 허하였다. 러시아의 아시아경영은 19세기에 더욱 그 걸음을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를 건설하고 일청전쟁(日清戰爭) 후에는 만주(滿洲)에 세력을 부식(扶植)하여 여순(旅順), 대련(大連)을 조차하고 태평양에 세력을 신장하려 하였다. 프랑스(佛蘭西)는 19세기의 중엽으로부터 인도차이나의 경영에 노력하여 1959년에는 사이공(西貢)을 얻고 이어서 캄보디아 베트남(安南)을 보호국으로 하여 동경(東京)을 획득하고 또 □ 나현(羅現) 태국(泰國)으로부터 메콩강 이남의 땅을 얻어 태평양의 일각에 그 세력을 확립하였다. 독일(獨逸)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 방면에 착목(着目)하여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뉴기니아를 분할하고 이어서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를 점령하고 교주만(膠洲灣)을 조차하여 마리아나, 바라오 양 제도를 스페인로부터 구입하고 사모아 제도를 합중국(合衆國)으로부터 나눠서 태평양에 일세력을 이루었다. 미국은 오래 먼로주의를 보지(保持)하였으나 19세기말부터 제국주의를 채택하여 1898년에 하와이(布哇)를 병합하고 미서(米西)전쟁⁸⁹⁾으로 쿠바 섬과 필리핀 제도를 얻고 태평양 상에 세력을 신장하였다. 아국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급격히 발전하여 일청전쟁으로 대만(臺灣)을 획득하고 일러전쟁으로 노국(露國)의 태평양진출을 방지하며 사할린(樺太) 남반(南半)을 얻어 북태평양에 세력을 확립하였다. 1914년 세계대전 뒤에 아국은 적도이북의 구독일령의 위임통치를 맡게 되니 제1차대전 후 태평양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일로미영(日露米英)의 관계가 중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게 되어 드디어 태평양전쟁에 까지 이른 것이다.

원래 미국의 국책은 19세기 말에 해장(海將) ‘마한’의 지론에서 그 원(源)을 발(發)한 자이니 그는 ‘국책이란 무엇이냐’라는 제하(題下)에 “국책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요구할 때에는 무력으로써 이 지지관철을 기하는 바의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먼로주의와 중국의 문호개방문제인데 먼로주의에는 무력발동의 필요를 인정치 않으나 극동경영을 위하여는 웅대한 해군력을 필요로 한다.” 하고 당시의 대통령은 이 말에 감분(感奮)하여 미서전쟁당시에 필리핀 제도(比島)점령을 결행하고 중국문제에

89) 쿠바섬을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대한 발언권의 확보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비도 영유는 태평양에 다리를 놓게 된 것이라' 고 갈파(喝破)하였다.

이 태평양의 가교야말로 중국에 진출하고 태평양제패를 목표로 한 것이니 이를 위하여 대해군 건조를 계획한 것이 소위 '스타크 안'으로 총액 127억 달러로써 1946년 말까지 5만5천 톤급을 포함한 전함 35척을 위시하여 항공모함 20척, 순양함(巡洋艦) 88척, 구축함(驅逐艦) 378척, 잠수함 180척, 계 701척, 총톤수 350만 톤이라는 사상(史上) 공전(空前)의 대군비확장에 착수한 것이다. 그 후 태평양전쟁 발발에 의하여 항공모함의 급증 등 다소의 변경은 보았으나 익익다액(益益多額)에 건함비를 지출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리핀 제도에서는 개전 후 수개월에 이미 구축되어 서태평양의 거점은 전혀 상실하여 버린 것이다.

원래 미국은 먼로주의 이래 전통에 의하여 서반구의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이 방위와 관계있는 아프리카(亞非利加)와 호주에는 항상 일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영국이 유럽에서 대독전쟁상 도저히 호주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영국의 속령인 호주를 그 수중에 넣어 그 유산을 상속하려하므로 이 방위를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하며 솔로몬제도를 손에 넣으려고 서술한 바와 같이 작년 8월 이래 태평양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3.

아국의 해군은 막부시대로부터 힘썼으나 메이지유신 후에 일대비약을 이루었다. 1868년에 해육군무과(海陸軍務課) 설치, 다음 해 3월에는 해군병학교 개신(改新), 1872년 해군성 신설, 1873년에 요코스카(橫須賀) 조선소(造船所)에서 아국인의 손으로 처음 군함, 청휘(淸輝), 신경(迅鯨) 양함(兩艦)의 건조를 착수하고, 1875년에는 후소(扶桑), 금강(金剛), 비학(比叡) 삼함(三艦)의 건조를 주문하였다. 말기에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巨文島)를 점령하여 동양의 풍운이 험악하였으나 영국은 이것을 중국과의 티베트(西藏)문제해결에 대하여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이용하는데 그치었다.

1882년에 해군군비확장에 관한 군유(軍諭)가 내리고 1886년에는 해군조례의 발포와 함께 군정, 훈령의 별이 분명하게 되고 1887년에 건함 계획안이 의회와 정부 간에 상지(相支)되자 황송하옵게도 메이지 천황께옵서는 제함장려비로 향후 6년간 어내탕금(御內帑金)을 하사하옵신다는 분부와 함께 조칙을 하사하옵시니 관민은 모두 성려에 공구감격(恐懼感激)하였다.

1894년 일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함대는 풍도충(豊島沖), 황해, 및 위해위해전(威海衛海戰)에서 대승을 박(博)하여 청국함정 17척을 획득하여 우리 해군력은 더욱 증대하였고 1896년부터 1897년 일러전쟁 중에 순양함과 전함을 우리 해군 공돈(工噸)에서 기공(起工)하여 대함건조에 일신기축(一新機軸)을 열고 1911년 전함 금강(金剛)을 외국에 주문한 것을 최후로 이후부터의 군함은 전혀 국내에서 만들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일러전쟁에 일본해에서 위공을 세운 도고(東郷) 원수에 감사하는 동시에 군정가(軍政家)로서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대장과 조선(造船) 기술의 독립으로서 히라카(平賀) 박사에 감사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우리 나라가 참가한 후의 활약전은 열강을 당목(瞪目)⁹⁰⁾케한 바 이었고 1920년 88함대의 완성은 미영으로 하여금 더욱 경계와 시기의 눈을 뜨게 되어 1921년의 워싱턴

90) 당시(瞪視). 놀라거나 괴이쩍게 여기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물끄러미 쳐다봄

(華盛頓)회담에서는 미영 각 오에 대한 아국 3, 소위 5, 5, 3 비율로 아국 해군을 영원히 그들의 배하(配下)에 두려하였다. 1927년의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담은 순양함 보유문제로 미영 간에 의견이 불일치 되었으나 1930년에 런던(倫敦)에서 열린 군축회담에서는 일, 영, 미 삼국 간에 보조함 병력량의 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1936년까지의 잠정적의 것인데 1934년에 아국은 워싱턴(華府)회담의 5, 5, 3 비율로는 국방의 안고(安固)를 기치 못하겠으므로 이 폐기 통고를 하고 1935년에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영미와 균등한 원칙하에 공정한 축군(縮軍)을 제안하였으나 미영은 이를 거부하여 1936년에 일영미불이 5국 군축회담 탈퇴, 자주적 해군완성에 매진하는 중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고 1941년 12월 8일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서 태평양 상에 일대 결전이 전개하게 된 것이다.

적 미영은 19세기를 대서양의 시대라고 하고 20세기를 태평양의 시대라 하여 아시아인 10억이 생존을 위하여 활약할 아시아의 전정(前庭)에 놓인 태평양을 감히 아시아 정복의 무대를 삼으려하여 금차의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4.

이러한 세기적 아시아 10억의 대미영전쟁이 진행되는 한가운데-태평양을 중심으로 치열한 결전이 계속 되는 중에-반도에 해군지원병제가 실시된 것은 그 의의가 중대한 바이다. 반도는 동서남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므로 옛날부터 상당히 해양과 친하였었고 삼국시대의 장보고(張保臯), 정년(鄭年)은 이 모두 해양을 중심으로 한 호걸(豪傑)이요, 이조(李朝)에 이르러서도 통제사, 수군절도사, 수사, 방어사 등이 있었으나 대개 연안 방비의 보수적이요 하나도 해양을 정복하여 크게 위세를 4해에 떨치겠다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반도인도 황국 해군의 일원으로 동아 10억 인을 대표하여 태평양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지대한 감격에 잠기는 바이다. 이 공포를 보자 반도의 청소년이 다투어 혈서지원을 함도 걱정의 소치로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보다도 책임의 중대함에 숙연히 자계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해군무관부의 마츠모토(松本) 대좌(大佐) 담(談)에는 해군의 자질로서

- 1) 견확(堅確)한 정신의 함양(檻羊)
- 2) 과학성을 다분(多分)으로 요하는 것
- 3) 언제든지 긴장을 요구하는 것
- 4) 완건(頑健)한 체위를 요구하는 것
- 5) 기민한 판단과 치열한 감투정신이 요구되는 것

등을 들어 경계한 바이 있고 또 특히 책임 관념에 투철함이 그 제일요건인 것을 말하였다. 대개 해상에서는 일인의 임무가 전군에 영향되는 바가 크고 결전승패의 기(機)를 최초 5분간에 포착하는 여부에 달렸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이다.

생을 이 세기적 결전시대에 타고나서 동아인의 천년운명을 결정하는 태평양전에 나선다는 것은 남아의 본회(本懷)라 한 것이다.

이번 황국을 위하여 위대한 순절을 한 연합함대사령장관 야마모토(山本) 56원수는 일러전쟁 때에 일본해전에 출전하여 팔에 적탄을 맞았었는데 치료 중에 군의가 팔을 자르자고 하니 그는 숙연(肅然) 정금(正襟)하고 '이팔은 폐하게 봉공할 팔인데 자르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르지 않았었다. 그 후 손가

락 둘만 자른 그 철완(鐵腕)으로 연합함대를 이끌고 태평양 상에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야마모토 원수는 일찍이 대사관부(大使館附) 무관(武官)으로서 미국 아나폴리스 병학교를 참관할 때에 말이 우연히 말래(未來) 일미전(日米戰)에 미치자 교관은 도도히 미국해군과 일본해군과의 비교를 말하였다. 가만히 종시를 듣고 있던 원수는 고요히 미소하며 하여간 그 해답은 전장에서 보여 드리오리다 하였다. 과연 그 해답은 하와이해전으로 거오(倨傲)⁹¹⁾한 그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하였다.

동경 가스미가세키(霞關)에 당당하게 우뚝 솟은 해군성의 대신실(大臣室)에는 17·8인의 역대 해상의 초상사진이 걸리어고 일단 높은 벽간에는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원수의 정장한 유화가 걸리어 무궁히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해군의 수호신이 되어 있다. 반도의 청소년은 이 벽간에 어떻게 걸리려는 결의가 있는가.

〈출전 : 柳光烈, 「海軍志願兵制 實施와 半島 青年의 榮譽」, 『朝光』 第9卷 第6號, 1943년 6월, 20~25쪽〉

20. 윤덕영(尹德榮)

1) 반도의 지원병에 바란다

고문 자작 윤덕영

일시동인(一視同仁)·내선융화(內鮮融和)를 소리 높여 외친 지 이미 오래다. 그렇지만 반도 민중은 국민의 최대 의무인 병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를 유일한 유감으로 생각했는데, 작년 반도 땅에도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현되기에 이르러 이제 이로써 내선일여(內鮮一如)는 백척간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다.

우리 대일본제국의 군대는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가 친히 통솔하시는 것으로, 그 장병의 충용무비(忠勇無比)함은 물론 폐하를 위해, 조국을 위해 죽음으로 봉공하는 것은 세계에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황국의 자랑으로 삼는 바인데, 이제 우리 반도인(半島人)⁹²⁾도 이 황군(皇軍)에 들어가 동아신질서 건설에 함께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은 반도를 위해 또 우리나라(邦家)를 위해 참으로 경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본 제도가 실현되는 이상 반도청년은 앞으로 꼭 지원병에 지원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따르고 나아가 더욱 더 이를 확충·진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작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수료하고 제1차 입영하는 지원병들의 그 이후의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는 정평이 있다. 그 일부는 이미 우리 대륙 작전에 참가해 혁혁한 무훈을 올렸고, 나아가 호국의 꽃이 된 용사도 있으니, 다행히 반도청년을 위해

91) 거만(倨慢)스럽고 남을 낮추어 보는 교만(驕慢)한 태도(態度).

92) 조선인.

만장의 기개를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거기다가 반도 지원병은 자신의 사명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수양과 단련을 쌓아 그 정신력에서, 그 체력에서 모두 일본 내지인의 그것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고 훌륭한 황국의 군인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반도 지원병의 성적이 양호하다는 정평은 올해 이미 수용 정원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고, 지원자 수는 작년의 1,900여 명에서 일약 1만 3,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원자 수가 급증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딱히 본 제도의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 황군병사로서의 요건들을 구비한 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원병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야유적(揶揄的) 기본에 응모하는 자가 있어서는 그 지원자 숫자의 급증도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특히 작년도 실적에 비추어보면 이런 경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마음에 새겨둘 사항이다. 또 중류 이상 가정에서의 지원도 아직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일반 지식인의 지도와 함께 이를 크게 중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의 대세는 유럽의 신 정세를 둘러싸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반도청년의 분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은 반드시 지원병이 됨으로써 반도인에게 기대되고 가중된 중대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국토의 방어에, 공성야전(攻城野戰)에, 반도청년의 의기를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란다.

반도인이 진정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쌓아두고 일본정신을 운운하는 것보다 제군들이 실지(實地)에 배낭과 총을 어깨에 걸치고 이향(異郷)의 진흙땅을 묵묵히 진군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 우리를 감격케 하고 거기에서 약동하는 살아 있는 일본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강국 일본의 모습은 이로써 한층 더 배가된다.

바라건대 그 체력에, 그 정신력에 한층 더 향상을 도모하고, 조국 일본을 위해, 반도청년의 의기를 중외에 드러내어 인류의 행복·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전 : 尹德榮, 「半島の志願兵に望む」, 『總動員』 1卷 5號, 1939년 10월, 34~35쪽〉

21. 윤치호(尹致昊)

1) 징병제 실시와 조선청년

이동치호(伊東致昊, 이토 치카우)⁹³⁾

조선인은 이조(李朝) 500년래 병대(兵隊)가 되는 것을 비천시하는 풍습이 전통적 오히려 제2천성이 되어 있었으므로 과연 지원병에 응모하는 자가 있을까,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의 군인으로서 그

93)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제1회의 지원병에서 차질(蹉跎)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뒤를 따르는 청년의 전도에 위구(危懼)⁹⁴⁾하는 바가 있다는 걱정이 나는 물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예정과 판이하여 매우 양호하였다. 그 후는 매년 정원에 수십 배가 되는 지원자가 앞을 다투어 응모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졸업하고 나간 병사 중에는 신(神)으로 제사(祭祀) 받아 수훈갑의 은명(恩命)에 빛나는 자까지 나게 되는 정도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반도의 지원병을 다시 인식하였다. 철의 체구에다가 일본정신을 넣는다면 일본병대만 못지않은 장병을 만들기에 곤란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반도 청년은 체위에 있어서는 물론 소질에 있어서도 일본의 청년에게 과히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오랫동안 생활환경과 교육의 밀도의 차이에 의하여 뒤떨어진 바가 있지만 그러나 연성(練成)과 교육에 의하여 일본 청년의 수준에까지 높일 수가 있다고 믿는다. 이제야말로 반도청년의 가슴속에 울연(鬱然)⁹⁵⁾히 끓어오르는 미영격멸(米英擊滅)의 투혼을 결집하여 훌륭한 신병(神兵)으로서 생명을 바칠 절호의 때이다.

〈출전 : 伊東致昊 「徵兵制 實施와 朝鮮青年」, 『春秋』第4卷 8號, 1943년 9월, 42쪽〉

22. 이각종(李覺鍾)

1) 황민의 본령을 발휘할 날은 오다

국민총력조선연맹 □□ 청산각종(靑山覺鍾)⁹⁶⁾

징병제가 반도에 실시하게 된 것은 국가 전체로 보아서 또는 조선 사람의 처지로 보아서 경하할 일이다.

첫째로는 우리 조선 사람도 그만큼 폐하의 어신임(御信任)을 받든 것이니 우리도 폐하의 애육(愛育)하옵시는 적자(赤子)로 국가의 유용한 간성(干城)으로 황은(皇恩)을 □□ 광영이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병합 이래 30여 년에 조선 시정 당국의 노력한 결과이라 하겠으며 또는 사변 이래로 반도 사람의 애국열성이 비상히 양양되어 이 성의가 천청(天聽)에 상달된 결과일 것이며 또는 근년 지원병 제도가 실적이 양호하여 내지인 병원(兵員)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보인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위로 성상(聖上)의 어신임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광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차별대우가 철폐되는 제일보이다. 종래에 병역은 내지인에게만 한하고 반도인에게는 허치 아니하던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이 차별을 철폐한 것이니 여기에 따라서 모든 대우문제는 점차로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인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향상되는 제일보라 할 것이다.

94) 염려하고 두려워 함.

95)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짐. 크게 성하다.

96) 이각종(李覺鍾)의 창씨명.

셋째로는 반도 사람이 황국신민으로서 완전 연성(鍊成)되는 최상의 기관이라 하겠다. 국민연성의 기관으로는 학교교육,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군대교육이다. 병영이라는 활감과(活堪鎬)에 넣고 도야(陶冶)하면 생활과 성격과 체격이 완전한 일본인으로 연성될 것이니 내선일체를 촉진하는 데는 다시 없는 좋은 방법이다. 군대라 하기보다 학교라 할 것이며 복무라 하기보다 양성이라 할 것이니 입영하는 그 사람 개인으로서도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의 실시를 충심(衷心)으로 환영하며 개인의 사정으로는 어떠한 곤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억제하고 그야말로 멸사봉공 글자 그대로 봉공할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은 우리도 참으로 일본정신의 참 된 뜻을 알아야 하겠다. 원래 일본국민은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들어 천황께 바치는 것이다. 천황을 떠나서는 자기라는 것은 없다. 원래가 바친 몸이니 부르시면 나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생명까지 바쳐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가정에서부터 자제를 교육하여 일본국민으로서의 본령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출전 : 靑山覺鍾 「皇民의 本領을 發揮할 날은 오다」, 『半島之光』 鮮文版 56號, 1942년 7월, 13쪽〉

2) 적전(敵前)에 새해를 맞이하여

靑山각중(靑山覺鍾)

필승불패의 신념이 재아(在我)하니 모름지기 침용(沈勇)⁹⁷⁾을 요할 것이다.

이제는 정신력과 정신력, 물질력과 물질력이 전부가 대치(對峙)하였으니 최후까지 버티는 힘 - 완장력(頑長力)이 승리의 요체가 될 듯.

〈출전 : 靑山覺鍾 「敵前에 새해를 맞이하여」, 『半島之光』 鮮文版 72號, 1944년 1월, 10쪽〉

23. 이성환(李晟煥)

1) 지원병사 제군에게

- 대동아 건설의 젊은 용사여, 오늘과 내일은 너의 것이니라

대동광업회사(大同鑛業會社) 중역 이성환

현하 제(諸)정세를 감(鑑)하건대, 명일(明日)의 싸움은 동양인끼리 서로 민족적 관념 밑에서 싸울 투

97) 침착하고 용감함.

쟁이 아니라 동양 대 서양의 싸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환언하면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일 것이외다. 그렇다면 동양인으로서의 우리는 일본이라 조선이라 만주라 지나(支那)라 하는 그러한 편협한 민족투쟁을 집어치우고, 동양인 전체가 동일체가 되어서 대동아의 국방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 한 나라의 국방이 아니고, 지나 한 나라의 국방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해서 동양전체의 국방이외다.

이러한 대동아의 국방에 조선인이 참가하여 분투 노력 못한다는 것은 조선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문제일 줄로 생각하는 바이외다. 다시 말하면 대동아의 국방에 조선인이 참가 못한다는 것은 조선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외다.

그런데 조선인 속에서 동아의 국방을 위해서 지원병이 생겼다는 것은 실로 경하할 일인 것입니다.

만일 조선인 청소년에게 징병령이 내린다면 100만의 병정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원병은 징병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지원병이외다. 하구 싫어서 자기가 자진해서 지망하는 지원병이 제2기 모집에 8만 6,000이라는 근 10만을 돌파한 것은 실로 대서특기(大書特記)할 일외오, 이 기세를 국가는 배양하고 조장해서 최후에는 징병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외다.

과거, 수십 년간의 조선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다양다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조선사회 안에는 한말시대의 정객도 있고, 그 이후의 민족주의운동을 하던 인물도 있고, 또 그 이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와서 수십 년간 살아온 내지인과, 내지에 있는 내지인도 역시 과거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으로 좋지 못한 현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 밑에서 양자간에 피차 이 모든 좋지 못한 관념을 버리게 되는 현상은 참으로 기쁜 일이나, 그러나 이러한 사상에 젖었던 사람들로서는 아무래도 그 근성의 적은 한 끝으며리라도 머릿속 어느 구석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진정한 내선일체는 역시 과거인 보다 순수한 정신을 가진 내선인(內鮮人) 청소년 제군에게 있다고 봅니다.

고로 과거는 과거로 매장하고, 금일과 명일은 청소년에게 있다고 절규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제군은 “과거인은 물러나라. 금일과 내일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부르짖으며, 대동아 신질서건설에 용약매진(勇躍邁進)해야 할 것이오, 동양평화를 위해서 배전(倍前)의 분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출전 : 李晟煥 「志願兵士諸君에게 - 大東亞建設의 젊은 勇士여 今日과 明日은 너의 것이니라」, 『三千里』 第12卷 7號, 1940년 7월, 68~69쪽〉

24. 이영근(李泳根)

1) 징병제와 조선 어머니에게

상전용남(上田龍男)⁹⁸⁾

조선의 청춘남녀는 물론하고 어버이 된 이들에게 커다란 감격을 준 징병제 실시는 조선 사람들의 굳은 결심과 빈틈없는 애국적 정신을 요구하는 역사적 국사입니다.

이때 귀여운 아들을 전선에 내어보낼 어머니 되시는 분들의 인생관이며 생활태도가 특히 커다란 변화를 해야겠으며 어머니들의 힘이 이 나라의 국역을 북돋우는 데 근본적요소가 되는 것을 알아서 조선의 여성계발운동을 맹렬히 일으켜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도 이 운동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금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특히 부인계발운동에 힘을 쓰기로 하고 부인지도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참조할뿐더러 전선적(全線的)으로 일으켜야 할 운동이니만큼 각 지방연맹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하 몇 가지 조목의 설명은 연맹에서 제정하고 총재의 훈사하신 뜻을 본떠 특히 징병제하에 처할 부인도(婦人道)임을 먼저 말해 둡니다. 자세한 세목은 차차 제정될 줄로 압니다만은 먼저 정신적 방면을 들어 해설할까 합니다.

(가) 부덕의 함양

어머니 된 사람 자신이 자녀의 모범할 만한 부덕을 가져서 일일이 말로 타이르지 않아도 스스로 본뜬 인격을 길러야 하겠으니 이 수양을 위해서 특히 이하의 기록한 정신을 기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국체(國體)의 존중함을 깨달을 것

황군의 어머니 될 사람의 근본적 마음씨는 이 한 가지 일이 결정되면 다시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일본에 대한 신앙입니다. 나라를 믿고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라임을 믿고 자랑하고 소중히 아는 마음입니다.

2. 신명을 섬길 것

천지신명의 힘을 빌어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살림을 해 나가는 여성이라야 앞으로 쓸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 판수, 못꾸리, 점쟁이, 사주쟁이 같은 것을 찾아 다니면서 쓸데없는 팔자타령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다 같이 섬기는 신사(神社)를 참배하고 집에는 '가미다나(神棚)'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가미다나'를 통해서 온 나라의 영(靈)을 맡은 신사를 참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사에 참배할 때는 나 하나를 행복되게 하여 달라든지 우리 집 식구의 병을 고쳐 주시라든지, 돈을

98) 이영근(李泳根)의 창씨명.

모르게 하여 달라든지 이러한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나라의 영세무궁한 발전을 빌고 국민전체의 진흥보국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야 아무리 되던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던, 이 나라만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것입니다.

3. 내선일체의 정신을 잃지 말 것

내선일체는 국책의 방향이요, 조선통치의 이상입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조선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한 맘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서로 형제의 화목과 국민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조선 사람은 자기의 교만심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맘으로 일본정신을 받아들여 이것을 내정신을 삼아 충실한 국민의 신념을 굳게 할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 된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일본 여성들의 생활을 본떠서 친절하고 양전한 일본부인을 벗으로 사귀어 이들과 재미있게 사귄뿐더러 실제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일본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본 청년들과 같이 황군의 전장에서 활약할 때 서로 생활형식이 다르면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일본 부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솔직하게 배워가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의 내선일체야말로 진정한 내선일체입니다. 이 귀한 사업은 부인들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4. 지식의 향상을 도모할 것

앞으로 새질서를 건설하고 새 생활을 발견할 조선의 영성이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급한 문제는 여성의 지식향상이라 하겠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급한 것은 국사에 대한 지식과 국어습득과 생활의 과학화라 하겠습니다.

국사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라의 존중함을 가르치고 어머니 자신이 국어를 상용하여서 가정의 생활을 국어로 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에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배우는 데 자리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나가면 자녀들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숭배를 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과학화는 조선가정의 긴급한 일일시다.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러 하니 가정생활이 단순하고 질서있고 과학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들은 무력전에만 용사가 될 뿐 아니라 건설전에도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문이 발전되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은 우리 국민의 과학적 두뇌를 요구합니다. 자녀가 과학적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먼저 과학적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나) 자녀의 양육

1. 자녀는 국가의 보배

우리의 자녀는 국가의 보배요, 나라를 지키는 방패요, 국민생명의 영구한 발전을 위한 핏줄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소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래로 충신열사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키워서 나라를 위해 바치고 온 세상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